한국영상기자협회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영상기자

♣♣♣ 한국영상기자협회 윤리강령 ♣♣♣
◈ 사명과 책임을 다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
◈ 풍요로운 국가 건설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 공정보도 방송을 수행함이 이 시대의 요청임을 깊이 인식한다.
◈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불의로부터 지켜 나간다.

영상기자 144호 (격월간)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1999년 4월 23일 창간 www.tvnews.or.kr

윤 대통령, 금명간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할 듯

언론시민사회 "이 특보는 MB정부 언론장악 전문가…자격 없어"
야4당 "이동관 지명 · KBS수신료 분리징수는 언론장악 의도" 공동 대응키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정부의 언론 장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 특보가 방통위를 통해 언론장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야4당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 등을 윤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펼치겠다고나선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앞장서온 '언론 장악 전문가'이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방통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경향신문은 27일 '이동관, MB 때 KBS 인사 개입…국정원에 '좌편향 인사 파악' 지시' 기사에서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재직 시절 공영방송 조직개편에 간여한 정황이 국정원 문건과 국정원 간부의 검찰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현직 기자들도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문자 발송에 성공한 1만1069명(전체회원 1만1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73명 가운데 80.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찬성한다'는 7.1%, '적극 찬성한다'는 6.0%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6%).

기자협회에 따르면, 기자들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어서'라는 응답(80.3%)이 가장 많았고, '현직 대통령실 인사 임명은 방통위 독립성 침해'(61.5%),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58.5%), '경험이 부족한 미디어 정책 비전문가'(25.4%) 순이었다.

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은 "기자협회가 평소 창립기념일에 맞춰 설문조사를 할 때 응답자 천 명을 채우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주말에 조사했는데도 1400명이 넘었다"며 "응답자들의 소속사가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신문 등 고르게 나와 매체 유형이나 세대, 연차에 무관하게 현직 기자들이 전반적으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윤 정부가 언론 장악 움직임을 노골화하면서 야당도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 류호정 정의당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본격적으로 공영방송을 향하고 있다"며 "우리 야 4당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 손아귀에 넣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한 이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 특보에 대해 "(이 특보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설계자"라며 "국정원까지 동원한 언론장악 장본인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 4당 의원들은 또 대통령실 주도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추진되는 것을 두고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여론몰이가 아닌, 여야가 국회에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특위'를 설치해 KBS 수신료 등 공영방송 재원과 공공성 강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잔뜩흐린 하늘아래보수 · 극우 단체들이 보낸 조화들이 KBS 본관을 둘러싸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글을 올린 뒤 지난 5일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6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KBS는 21일 "현재 진행되는 시행령 개정 절차와 개정안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라고 비판한 뒤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데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또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민제안 온라인 찬반투표는 중복참여와 조직적 투표 등 대표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며 대통령실의 분리 징수권고 열흘 후 진행된 방통위 심의‧의결도 5인 체제 위원회에서 3인만으로 심의‧의결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현재 여권 추천 몫인 김효재 · 이상인 위원과 야권의 김현 위원 등 모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언론유관단체는 김 직무대행이 KBS 분리징수 작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며 국회에 김 직무대행의 탄핵을 요구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KBS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수신료에 대해선 장기간에 걸쳐 논의가 이뤄져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하는 것에 대해 법제처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통위원은 정당 당원이나 3년 이내에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통위원장과 위원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의 측근인 이 특보는 절대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방통위가 완전체도 아닌 상황에서 입법예고 기간까지 단축하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것은 KBS를 향해 '재원이 줄어들면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릴 텐데, 정부와 우호적으로 지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엄청난 압박"이라며 "비판보도를 줄이고 호의적 보도 하라는 뜻이자 앞으로 KBS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수신료는 징수 방법이 어떻든 모두가 내야하는 특별분담금인데, 정부는 '분리징수하면 수신료를 안낼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분리 징수를 찬성한 국민들은 매달 징수원과 갈등을 빚을 것이고, 찬성한 사람들은 깜빡 잊고 못 냈을 때 가산금을 내거나, 일정 기간 밀려 체납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별도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하는 등 국민 편익이 침해되어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 편익'이라는 명분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진행되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협회, 풀취재 및 풀단 운영에 관한 준칙 개정

풀취재 남용 방지 · 취재원 인권 보호 등 명시…7월 1일부터 시행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가 15년 만에 '방송뉴스 영상취재 풀취재 및 풀단 운영에 관한 준칙'을 개정했다. 취재보도 환경 변화에 따라 풀취재 준칙도 달라져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개정된 준칙은 우선 풀취재가 취재하는 영상기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취재진의 과열경쟁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임을 천명했다. 또, 풀취재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회원사와 회원중심의 풀취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회원 중심의 풀취재 원칙 확인, 수도권-지역-외신사간 풀취재 원칙 마련

새 준칙에 따르면, 영상기자단이 운영되는 출입처를 포함한 모든 풀단은 회원사와 회원을 중심으로 동일 인원 참여, 동일 취재, 풀팀 구성원이 요구하는 영상의 질과 송출을 구현할 수 있는 제원을 가진 취재장비, 송출 장비를 갖추고 취재하도록 했다(3조 3항). 온 · 오프라인 뉴스라이브, MNG 장비를 이용한 영상 취재와 송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고품질의 영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수도권사와 지역사, 외신사와의 풀취재와 취재 협조에 대한 준칙도 명시했다.

준칙 2장 5조는 수도권사와 지역사의 취재 이슈나 현장이 동일할 경우 두 풀 취재단 사이에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협회가 사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회담, 국가 행사의 취재 현장에 국내 방송사와 외신회원사 풀취재팀이 함께 취재할 경우에도 두 팀의 취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와 취재 인원 등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했다.

풀취재와 풀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일로 징계가 필요할경우 징계 당사자나 회원사가 풀단의 징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회가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된 준칙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나준영 회장은 지난 2월 17일 열린 제28대 회장 취임식에서 "각 지회와 지역지부 대표들로 '풀취재 · 포토라인준칙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 내에 개정 작업을 마치고, 개정된 준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노력들을 벌여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각 사 및 지부 대표한 개정위원들 참여해 연구 및 회원의견수렴 거쳐 확정

이에 따라 협회는 수도권 각 지회와 지역 부회장, 외신지회의 추천을 받아 12명으로 개정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4월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개정 작업을 해 왔다. 개정위원들은 준칙의 개정 방향과 풀취재 · 풀단 운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협회와 회원 중심으로 풀취재와 풀단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2008년 제정된 협회의 풀취재 및 풀단 운영준칙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국회 등 출입처에서 운영 중인 자체적인 세부 풀단 운영준칙, MNG송출과 관련한 1,2풀단의 운영준칙, 외신 풀기자단의 풀취재 운영준칙 등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논의해 왔다.

나준영 회장은 "회원사가 늘어나고, 취재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춰 빠른 개정작업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오랜 기간 미뤄져 취재현장에서 여러 혼란의 상황이 발생해왔다."며 "전국의 회원들이 참여해 함께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해 개정한 준칙인 만큼, 취재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취재원의 인권보호와 원활한 업무활동 보장, 영상기자들의 과열 취재경쟁 방지를 실현해 시청자들에게 보다 좋은 뉴스현장을 전달할 수 있는 영상보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안경숙기자 cat1006@naver.com

영상기자 멀티제작 능력 강화 연수

협회, 지난 5월 광주서 개최,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와도 교류
제작자에게 직접 듣는 보도 다큐의 제작 노하우, 글로벌 OTT 콘텐츠 제작 경험

누구나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시대, 영상기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뭘까.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영상기자도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쌓아온 노하우로 '나만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영역을 찾는다면 훨씬 경쟁력있는 영상기자가 될 것이다.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전국의 영상기자들을 위해 '영상기자 멀티제작능력 강화 연수'를 열었다.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는 전국에서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첫날인 16일에는 '웹다큐 달그릇: 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입니다.'와 TV다큐 '외면의 기록'을 기획·연출·제작해 제105회, 109회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상한 KBS 대전 심각현 기자가 강사로 나섰다. 심 기자는 그동안 꾸준히 웹다큐를 기획·제작해 TV 다큐멘터리로 발전시켜왔으며, 지금도 개국 80주년 UHD다큐멘터리 '해미읍성'을 제작하고 있다. 심 기자는 특히 웹다큐에서 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번 연수에서 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다큐의 구성과 제작 노하우등을 공유했다.

▲지난5월 열린 <영상기자 멀티제작, 능력강화연수> 중 OTT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교육 장면

둘째날인 17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피지컬100>, <나는 신이다.>, <먹보와 털보>를 기획하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윤권수 MBC PD(현 한국방송촬영인협회장)가 본인이 경험한 OTT프로그램의 기획, 협상, 제작 경험들을 교육했다.

또, 2023 광주민주포럼의 특별세션으로 열린 '국제언론상을 통한 민주화경험의 국제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참석해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첫회 수상자인 미하일 아르신스키, 브루노 페데리코 등 세계적인 영상보도 전문가들을 이틀의 연수기간 동안 직접 만나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언론이 작고 위태로운 성냥일지라도 그것이 없다면 어둠은 훨씬 커질 것"

협회, 2023광주민주포럼 특별세션 국제세미나 열어
제1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언론학자, 회원, 국내외 시민운동가들 참여
힌츠페터상을 통한 언론인들의 국제연대, 한국의 국제보도 활성화 방안 모색

"언론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작고 위태로운 성냥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 어둠은 훨씬 커질 것이다."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특집상을 수상한 브루노 페데리코 기자가 지난 17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국제언론상을 통한 민주화 경험의 국제화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세미나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가 2023 광주민주포럼의 특별세션으로 힌츠페터국제보도상 1회 수상자들을 초청해 마련했다.

▲지난 5월 17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광주민주포럼 세미나

페데리코 기자는 "지난 몇 년 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끝없는 탐욕을 가진 소수가 저지르는 폭력에 고통받고 저항하는 다양한 인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계속되는 질문은 '언론이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페데리코 기자는 콜롬비아와 파나마를 잇는 협곡지대인 다리엔갭을 거쳐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이주자들의 험난하고 위험한 여정을 카메라에 담아 지난 2020년 8월12일 미국의 공영방송 PBS에 '필사적인 여정'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는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미미한지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만, 언론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작고 위태로운 성냥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 어둠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우리의 다큐멘터리, 보도, 기사로 이주민의 미국 혹은 유럽행을 막기 위한 각국의 정책을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대상인 '기로에 선 세계상'의 첫 수상자인 미하일 아르신스키는 "2020년 당시 야당 후보였던 스비아틀라나 치하노스카야의 선거 운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벨라루스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는지 보여주기 위해 '두려워하지 마(Don't be afraid)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아르신스키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벨라루스에서의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사안이 주목을 끌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민주적 가치와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되는 벨라루스의 싸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에 이어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더 커졌고,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 대신 다자질서가 등장했으며,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는데도 관성과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국제뉴스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한국 언론의 외신 의존도는 90%로 미국과 영국 언론에 집중되어 있다"며 "더 이상 외신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혜승 전남대 교수(신문방송학)는 "MBC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해외 순방 때 전용기 탑승 거부, KBS 수신료 분리징수,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의 구속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을 보면 한국에 언론 자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제3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공모 시작

민주,인권,평화를 주제로 한 지난 1년간의 국내외 영상보도 출품받아
오는 7월 21일까지 국제공모 뒤, 국제심사위원단 심사 거쳐 9월 수상작 발표

올해로 세 돌을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수상자를 찾는 대장정을 시작했다.

2023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국제공모 일정 등을 소개하고 공식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공모 부문은 예년과 같이 대상인 기로에선 세계상, 뉴스 부문, 특집 부문 등 3개의 경쟁 부문과 비경쟁 1개 부문 등 모두 4개 부문이다. 공모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21일까지이며, 2022년 6월 1일부터 올 6월 31일 사이에 TV와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에서 보도된 뉴스, 기획보도, 보도다큐멘터리는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의 확인과 출품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hinzpeterawards.com/)에서 이뤄진다.

조직위는 공모가 끝나면 국제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홀수 해는 서울, 짝수 해는 광주에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는 11월8일 서울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시상식을 전후로 서울과 광주에서는 수상자, 국내 언론인, 언론학자, 영상보도에 관심 있는 학생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과 전시 등 다양한 특별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독일대사는 축사 영상에서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제3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국제공모를 축하"한다며 "진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상기자들을 기념하는 상의 목적과 의의에 깊이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세계 도처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들의 활동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은 한발 더 전진하고 있다"며 "1980년 5월, 목숨을 건 기자들의 활동으로 광주가 세상에 알려졌던 것처럼, 전세계 기자들의 노력과 용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이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세상에 알리는 전 세계 영상기자들을 격려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세계 시민들의 든든한 연대와 지지가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지난 2021년 제정한 국제언론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독일인 영상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을 기리고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인권·평화 실현을 위한 투쟁을 취재·보도하는 영상기자를 발굴하기 위해 탄생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영상기자 콘텐츠소재개발 제작 역량 강화 연수

7월 6일부터 이틀간 제주서 열려
배기성 역사 강사와 제주4.3사건 등 현대사 속 사건들
새로운 보도영상콘텐츠 소재화 가능성 고민.
뉴스영상의 고품질화를 위한 조명교육도 실시

지난 5년간 제주4.3사건, 여순사건, 3.8민주의거,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을 다룬 기획보도, 다큐, 온라인콘텐츠가 꾸준히 제작되어 오고 있다. 또, 이들 보도물의 영상기자상 수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협회는 현대사의 사건들을 새로운 보도영상콘텐츠의 소재로 발굴하고, 기존의 뉴스영상자료와 뉴스이슈를 새로운 콘텐츠로로 제작한 경험을 이야기 듣는 연수를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함덕 유탑호텔에서 개최한다.

1일차에는 '제110회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상한 제주MBC 김현명 기자와 제주KBS 고진현 기자, 그리고 '제134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한 제주KBS 강재윤 기자가 흑백 보도영상 자료를 컬러화한 제작 노하우와 제주4.3사건 관련 역사자료와 증언들을 재구성해 보도다큐로 만들어간 경험담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새롭게 재구성해 상호연관성과 영향에 대한 역사서사들을 전달하고 있는 배기성 역사강사를 초청해, '하나로 연결된 제주4.3사건과 한국현대사의 사건들'을 주제로 새로운 보도영상콘텐츠 소재개발을 고민해 볼 예정이다.

또, 둘째 날에는 배기성 역사강사와 함께, '제주4.3사건 현장에서 만나는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연수 참가자들이 역사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답사를 진행한다.

또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의 제작 프로듀서인 조성현PD가 "과거뉴스와 보도영상자료의 새로운 콘텐츠화'를 주제로 OTT 프로그램의 제작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3일차에는 장익선 MBC제작기술국 조명 파트장과 함께 영상보도 고품질화를 위해 어떻게 조명을 디자인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교육 받고, 체험하는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이경선 tvnews@tvnews.or.kr

감사로 털고 주인 바꾸고 압수수색으로 겁 주고 돈줄 죄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어디까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도 모자라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뭘까.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6일 이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미 29일 차관회의와 다음 달 4일 국무회의 상정‧ 의결을 예고한 상태다. 이 계획대로라면, 대통령실의 권고 이후 한 달 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당사자인 한상혁 전 위원장은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것은 총선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차기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의 밑자락을 신속히 깔고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은 '여권 인사의 방통위 장악 → 방통위에서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 교체 → 이사회가 KBS와 MBC 사장 교체 → 교체된 사장이 정권 입맛에 맞는 내부 인사 단행 → 내년 총선에서 정권 편향적인 방송 시행'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 수신료 분리징수 빼든 대통령실, KBS 내부에선 사장 퇴진 요구도

정부는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에 법령 개정을 권고하자마자 방통위가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심지어 입법예고 기간을 유례없이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KBS의 한 저연차 기자는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정당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후 진행 과정을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정권 쪽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길들이는 차원에서 이 카드를 꺼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고참 기자는 "과거 MB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는 사장을 낙하산으로 보내 내부를 장악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공영방송 자체를 축소시키고 영향력을 미미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취약한 재원을 흔드는 방법을 들고나왔다"며 "공영방송은 권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이자 공기인데, 이걸 흔든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KBS의 '재원'을 건드린 '효과'는 확실했다. 내부 직원들이 김의철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수 성향의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소속 KBS 직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KBS를 위한 KBS 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새 KBS공투위)'가 지난 20일 편파방송과 무능경영 등의 책임을 들어 김 사장과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했고, 경영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PD협회 등 KBS의 4개 직능단체도 김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반면, 기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KBS 기자협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전체 회원 504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과 경영진은 물러나라는 내용을 기자협회 입장문에 담는다'에 대해 모바일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41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0명(52.63%)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98명(47.37%)이었다.

김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면 즉시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와 사장 거취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수단방법 안 가리고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첫 번째 시도가 공영방송 핵심 재원인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방송법에는 방통위가 수신료 징수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명백한 위헌적 · 위법적 직무집행"이라고 비판했다.

한 언론학자는 "KBS는 방송법상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이고, 방송통신기본법상 재난방송 주관사"라며 "이러한 KBS가 법에 명시된 방송사로서 보장된 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재원의 안정성 확보인데, 일부 보도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재원 문제 가지고 위상 자체를 위태롭게 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 MBC, 기자에 이어 뉴스룸 압수수색까지…감사원 국민감사로 방문진 · MBC 흔들기

대통령 비속어 보도 이후 MBC에 대한 정부의 탄압도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기자 개인 뿐만 아니라 뉴스룸 압수수색까지 시도하고, 감사원의 국민감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 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MBC 기자 A씨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하고 차량, 주거지도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뉴스룸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MBC 구성원의 반발로 수사관 2명이 해당 기자의 업무 공간을 확인하고, 압수할 물품이 없다며 돌아갔다.

▲지난 5월 30일 MBC 뉴스룸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경찰에게 MBC노조, MBC기자회, MBC영상기자회가 항의 하고 있다.

MBC 등 언론계 안팎에서는 A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당사자이고, 개인정보유출이 뉴스룸을 압수수색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복 ·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일 노보를 통해 "온갖 취재 정보가 모여 있는 언론사의 뉴스룸을 공권력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더욱이 기자 한 명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언론사의 뉴스룸을 뒤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방식"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또 "MBC 뉴스룸에 대한 전례 없는 압수수색 시도는 MBC 장악 시나리오의 신호탄"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의 한 기자는 "정부가 보수언론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넘어선 '무력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YTN, KBS에 이어 MBC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었다."며 "이번에는 압수수색 시도를 통해 '겁주기'에 그쳤지만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상황에서 '언론장악 전문가'를 내세워 방문진을 장악하고 MBC 사장을 교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청한 한 언론학자는 "취재와 보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자유의 핵심"이라며 "언론의 특별한 가치를 생각하면 압수수색이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자와 언론사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 중이다. 보수언론단체는 지난해 11월 MBC의 방만 경영 등을 문제 삼아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아닌 MBC와 자회사에까지 위법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와 방문진은 "감사원이 방문진의 내부 비공개 회의 속기록, MBC의 재무 정보 등 감사 항목과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방문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동시에 탈법적으로 MBC를 감사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 주식 매각 통한 민영화 앞둔 YTN, 단협 개정 통해, 보도의 공정성 · 자율성, 고용안정 추진

공기업 대주주가 가진 주식에 대한 매각 공고를 앞둔 YTN은 정부의 '사영화'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하면서 YTN 대주주인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에 YTN 주식 매각을 권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한전KDN 노조는 "지분 매각을 통한 사영화는 언론장악의 외주화"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주식 매각을 막진 못했다.

대신 YTN지부는 최근 고용 안정과 공정방송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발행된 특보에 따르면, YTN 노사는 고용안정협약을 신설해 △경영상의 이유로 YTN 본사나 계열사를 매각 · 분할할 때 △대량 해고나 희망퇴직 등을 실시할 때 반드시 고용안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는 회사와 과반수 노조 각각 3명씩 노사 동수로 구성되고,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구조조정을 할 때 노조의 합의를 거치도록 한 장치다 .

공정방송과 관련해서는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공정방송 의지와 자격을 검증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조합원이 보도 업무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회사가 소송 비용과 배상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최근 YTN 인수자로 떠오르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일보 등을 견제하기 위해 보도국장 자격에 'YTN 재직 10년'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고한석 지부장은 "사영화 위기 앞에서 노종자의 권리는 단협으로 단단히 했다"며 "이제 우리사주조합을 확대하는 등 주주 권리를 강화해 사영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YTN의 저연차 기자는 "기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사영화 되면 사주가 생기는 건데, 보도에 있어 기자들이 사주의 눈치를 보고 선택적 보도를 하거나, 광고 때문에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가장 걱정 된다"고 전했다.

이 기자는 또 "지분 매각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땐 내부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매각이 현실화하니 이제는 정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구성원들이 많아졌다"며 "매각 자체를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보수 언론사나 언론단체, 대통령 측근이나 대기업 등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급 기자는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우리 지분을 넘기려는 것으로 보여 '사영화'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며 "최대주주가 누가 되느냐보다 공적 재원인 방송이 특정 개인에게 넘어간다는 자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각 언론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을 뿐 결국 귀결점은 언론장악"이라고 꼬집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컨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준공영방송을 사영화해 공영방송 목소리를 줄이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언론 시장을 재편해서 현 정권이 표방하는 친기업 친시장 정책들을 언론의 견제와 비판 없이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경숙기자 cat1006@naver.com

<뉴스VIEW> 조항제(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졸속과 파행의 공영방송 공격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책이 입안된다. 그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자원과 사람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정책의 종류는 다양하다. 미디어정책도 그 하나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같이 찬성만큼이나 반대가 극심한 양극화 사회는 더욱 그러하다. 운 때도 맞아야 한다. 예기치 않은 글로벌 경제위기나 팬데믹을 만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물 건너가기 일쑤다.

정책은 목표와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근거도 있어야 한다. 앞의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뒤의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부동산의 가격 안정은 절대적인 것이고, 강한 규제보다 시장에 맡기자는 안은 상대적인 것이다. 국민의 지지가 다음 요건이다. 선거를 통한 당선이 후보의 모든 정책 공약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그중에는 목표나 과정이 불투명한 것도 있고, 다른 것보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있으며, 주변 조건이 나빠져 실효를 잃어버린 것도 있기 때문이다.

윤정부는 미디어정책에서 큰 그림을 제시한 적이 없다. 목표나 철학을 본 적이 없다. 그저 단순한 실행적 조치만 있을 뿐이다. 그에 대한 이유나 근거도 없다. 다른 안과 견주어 '보다 낫다'는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국민이 지지하는 지도 모른다. 오랜 기간 시청자와 함께 한 KBS에 철퇴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나 공론화도 하지 않는다.

이유에 짐작 가는 바가 없지는 않다. 다른 정책이나 스타일로 미루어 이 정부도 기왕의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부와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정부들은 대체로 상의하달, 상명하복 방식에 익숙하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거나 '임명권자의 뜻'처럼 위계에 의한 지배를 추구한다. 이들에게 (권력)감시 저널리즘은 매사에 딴지나 걸 뿐인 '성가신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모든 권력이 조금씩은 갖고 있는 이런 속성으로 윤정부의 정책을 무마시켜주기에는 그 결과가 너무 심대하다. 특히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그러하다. 한번 분리하면 돌아가기가 불가능할 것 같기 때문이다. 분리 징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헌재는 수신료를 '공영방송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통합 징수를 정당화했다. 실제 공영방송을 유지하는 많은 나라에서 수신료는 기본 재원이며 징수 방식 역시 대부분 강제적이다.

물론 수신료가 최근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청 단말기가 다양해지고 경쟁 미디어가 범람해 '(협회)가입료' 또는 '(기술)사용료'가 원래 뜻인 'licence fee'의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더 이상 수신료를 걷지 않고, 영국 역시 실행가능성은 미지수지만 수신료를 중단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캐나다나 네덜란드는 오래전에 국고로 돌렸다.

그러나 국민투표에 부친 스위스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독일과 핀란드에서도 일종의 가구세 또는 방송세(稅)로 전환해 오히려 수신료를 강화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우리처럼 전기료에 통합해 재원을 늘려주었다. 특히 유념할 것은 이들 나라의 수신료가 한국에 비해 많게는 9배, 적게라도 5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라는 점이다. 한국의 수신료는 주지하다시피 1980년에 제정된 이래 43년간 단 한 차례도 올려본 적이 없다.

수신료의 장점은 단연 책무성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런 수신료를 윤정부는 분리로 바꿔 공영방송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려 한다. 이의 심각성을 윤 정부는 정말 모르는 것 같다. OTT가, 종편이 정말 공영방송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윤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될 것이다.

제 110회 이달의 영상 기자상

잔인한 4월…'제주 4.3' 담은 출품작 많아 뉴스 가치 높고 영상 깊이 더해진 작품 '선정'

심사평

〈서태경 심사위원장〉

이번 영상기자상 출품작은 모두 22편으로 양적, 질적으로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4월에 방송된 작품들이기에 특히 제주 4.3 사건을 담은 출품작들이 많았는데, 긴 세월 동안 다뤄온 이슈임에도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세기를 지났지만, 아직도 명확한 마무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스 특종 단독 보도 부문입니다.

수상작은 MBC 김준형기자의 '포탄 해외 반출 단독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수출한다고 미국 기밀 문건에 나온 내용을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포탄을 운송하는 트레일러를 추적, 촬영한 현장 취재를 통해 그 문건의 내용을 증명했고, 우리 정부의 부인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트레일러 내부의 포탄은 촬영 불가한 상황이었고, 그것들이 실제 어느 나라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직접 촬영하진 못했지만, 포탄을 운송한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인터뷰와 타사의 후속 보도 등으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영상이 없었다면 문건의 내용이 데도 공허한 주장처럼 될 뻔했으나, 여러 정황의 후속 취재가 있었기 때문에, 뉴스로서 더욱 가치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뉴스 특종 단독 부문에 목포 MBC 홍경석, 노영일 기자의 '700억 전남도청 사무 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이 수상하였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19년째 독점 운영권을 준 매점의 수상한 거래 내역에 대한 취재입니다. 그 매점을통해 공무원들이 사적 용도의 물품들을 사무 관리비로 무분별하게 구입하거나, 가수 초청 행사와 연말에 집중된 사무관리비 소진 내역 등 지역 언론이 다루기 힘든 소재를 오랜 시간에 걸쳐 취재했고 그 실상을 날날이 보여줬습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춘천 KBS에서 출품한 작품 '양땟물 성분 무허가 규소수 제조'는 문제되는 제품을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 대해 많은 심사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수 있는 제품은 시청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생각입니다.

뉴스 탐사 기획 보도 부문에 SBS하룡 기자가 출품한 '작전명 '모자르트' ..SK의 수상한 파트너'가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복잡하고 어려운 대기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 그것을 감각적인 영상과 편집, CG로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상기자가 직접 리포트 구성 및 제작에도 참여해 리포트와 영상의 퀄리티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는 총평입니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가 누군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못한 채 미지수로 남겨둔 점은 이 작품의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도특집 다큐부문 수상작은 제주 MBC 김현명 기자의 '4.3 특집 – 남겨진 아이들'입니다. 2021년에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직권재심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정에 선 다섯 명의 유족들. 그분들의 애달프고 처참한 사연을 오랜 시간 동안 취재한 작품입니다. 장찬수 판사의 무죄 판결을 통해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함을 알렸는데, 잔잔한 영상과 인터뷰로 잘 구성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Chat GPT를 이용한 가상 이미지가 그 당시 역사적 고증이나 지형, 인물들에 대해 사실적이지 못해서, 작품의 리얼리티를 해쳤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함께 출품된 '4.3 75주년 특집 '사슬''은 연좌제 사슬에서 고통받는 제주인들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난 영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진 작품으로 끝까지 경합을 벌였으나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수상작만큼 주목을 받았기에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멀티 보도부문에는 MBC 손지윤 기자가 출품한 '현장 365 – 응급 구조사가 된 세월호 생존 학생'입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많았으나 생존자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이 작품을 만든 영상기자가 여성이었고 생존자인 여성 주인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작품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우울하지 않게, 밝게,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 많은 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주인공 섭외가 힘들었음에도 영상기자가 직접 오랫동안 설득을 해 이루어졌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 · 노동부문에 KBS 제주방송총국 고진현 기자가 출품한 '절대 극비 – 예비 검속자 학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져있지 않았던, 제주 4.3 이후 한국 전쟁 발발 전, 예비 검속자에 대해 고발한 작품입니다. 무자비한 학살 사건을 목격자의 증언과 기록물을 통해 날날이 알려줍니다. 이 작품은 영상 기자가 직접 기획, 촬영, 편집, 음악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처참했던 현장을, 재연을 통해 잘 보여줬습니다.

국제 · 통일 보도 부문의 수상작으로 SBS 최대웅 기자의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이 선정됐습니다.

1968년 2월 12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해병대 청룡부대가 '퐁니, 퐁넛'마을 주민 20여 명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에 대한 취재입니다. 피해자 중 '응우엔 티 탄'씨는 최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랜 세월 일제 치하 피해자였던 우리가, 타국에서 벌인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 사건. 가슴아프면서도 아이러니한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피해 당사자와 유족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사건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영상 취재를 위해 짐벌, 슬라이더, 드론 등 여러 특수 장비를 동원해 촬영한 결과 영상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잔인한 4월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느끼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역사의 수레바퀴 자국들, 훗날 현재 우리의 흔적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 SBS하룡 <작전명 '모차르트' …SK의 수상한 파트너>

"SK와 특정 사모펀드 운영사의 거래에 불법 정황에 대한 의혹이 보인다!"

〈SBS하룡〉

탐사취재부에 온지 1년만에 위와 같은 내용을 회의에서 듣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기자 생활에서 이런 거대 권력에 맞서서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흔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단순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문서와 관련자들, 경제 용어들까지 가공되지 않은 정보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들이 관련 문서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취재할 동안 영상기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좀 더 제작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템에 관련된 인물들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고, 제작에 들어갈 때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세히 기술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달 가까이 새벽 6시에 출근을 했고, 그 사이에 촬영분은 0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작에 들어갈 때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여 소모적인 제작 시간을 줄이고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표하고 있는 리포트 시점은 다가오고 취재도 차곡차곡 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에 나갈 만한 제작이 되질 못하고 있다는 점이 후반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래에대한 설명방식을 영상으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 그것도 이틀간 30분의 분량으로 나가는 아이템을 관련자들의 해명으로만 때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CG레퍼런스들을 최대한 찾아서 취재기자와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작한 원본 중 꼭 리포트에 써야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지컷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은 영상취재가 마친 저녁시간에 제작했습니다. 리포트의 기사 내용은 방송 직전에 데스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요도를 판단하며 미리 영상을 제작해 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취재기자들과 소통하며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재벌들은 최근 방영되었던 '재벌집 막내아들'이나 유튜브, 매체 등의 출연으로 과거보다 인간적인 면모를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또 하나의 셀럽, 연예인화하며 추종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공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견제와 감시 역시 늘 필요합니다. 이 리포트가 한국사회 경제권력에게 언론은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탐사보도부 동료들과 영상취재팀, 그리고 함께 긴 시간 고생해줬던 오디오 담당 김규민 님과 운전 담당 윤태일 님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뉴스특종단독보도부문 / 포탄 해외 반출 단독보도

'현장을 오롯이 전달 하는것. 권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영상기자의 첫 번째 역할!'

〈MBC 김준형〉

영상기자는 실제 현장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것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지만, 동시에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내 카메라가 슬픔에 빠진 취재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내가 담는 영상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번 취재는 후자였습니다. '155mm 포탄이 일반 화물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내진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하나도 쉽게 납득가지 않는 취재기자 선배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갈 때마다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제보 내용 속 탄약창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탄약창 앞에는 빈 화물차 행렬이 있었습니다. 두 시간 뒤, 그 두 배 정도 되는 차량에 모두 똑같은 상자가 실린 채 부대를 나왔습니다. 그 위에 붙은 노란색 폭발물 표시, 길게 줄지어 진해를 향하는 그들을 쫓으며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문득 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최근 우리 방송에 따라붙는 '국익을 해치는 뉴스'라는 말. 이 방송이 가져올 외교와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영향을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가에 해를 끼치는 걸까?'

소모적인 고민도 잠시, 우리의 역할을 자각했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이번 사태에 사회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기밀문건에 해당 내용이 유출됐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권력자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취재가 여러 문제를 촉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권력자가 시민을 눈치를 보게 만드는 일. 즉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흐릿해진 정신을 붙잡고, 카메라를 쥔 오른손에 다시 힘을 줬습니다. 한산할 것 같았던 평일 오전 고속도로는 폭발물을 실은 화물차들과 일반 시민의 차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불안한 모습에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은 많습니다. 주한미군이 확인해 준 내용은 있지만, 정작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명확한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론인의 역할을 잊지 않고 견제와 주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이번 취재를 가능하게 한 용감한 제보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 고민하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 상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3일 제110회 영상기자상 수상자들

인권 노동부문 / 절대 극비

가려진 한국사의 비극. 절대극비 '예비검속'에 마주하다.

KBS 제주 고진현

한국 현대사에 가장 큰 비극인 제주 4 · 3은 올해가 7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리고 6.25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4 · 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이 주로 1948년과 1949년에 집중돼 있긴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당시에도 4 · 3의 여파로 예비검속자와 전국의 형무소 수용자들이 처형됐습니다.

제주 4 · 3사건과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현대사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통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국가폭력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 절대 극비 예비검속

1952년 11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의 예비검속은 공표하지 말라"고 보안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예비검속은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지시하에 절대극비로 진행되면서 예비검속자들은 제주 4 · 3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증거나 혐의 없이 군경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예비검속자 약 200명은 '인민군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죄명도 없이 경찰에 붙잡혀 제주도 서귀포시 섯알오름에 끌려가 학살되고 약 500명은 알몸으로 바다로 끌려가, 다리에 돌이 묶인 채 총살됐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는 학살 현장

모슬포 섯알오름 예비검속 학살 사건은 주민들에게 발각되면서 그나마 실체가 드러나 '백조일손지지 위령비'를 세웠지만 바다나 공항에서의 학살은 29년 전인 1994년 목격자를 직접 만난 채록자로부터 녹취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검속은 군경의 기록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 증언에 의한 진상 규명이 전부였습니다

아날로그 시절 주력 카메라였던 소니 DCR-VX2000, DSR-PD150 6mm 캠코더로 녹취록을 되짚어보고 예비검속자들의 수장됐던 장면과 섯알오름 학살터를 재현하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故 이도영 박사님(1947~2012)으로부터 시작

아직도 예비검속자들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1997년부터 최초로 파헤쳤던 분이 있습니다. 故 이도영 박사님입니다. 엄혹한 시기 정권의 실세들도 찾아다니며 양민 학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예비검속 당시 상황이 기록된 미국의 방대한 자료를 발굴해 예비검속의 실체를 진상규명하고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분입니다. 이도영 박사님이 남긴 발자취가 없었다면 제작진의 '4 · 3 절대 극비 예비검속'의 기획물도 제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도영 박사님의 걸어오셨던 고귀한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제작기간이 길지 않아 매일 회의를 거듭하고 밤을 지새며 동고동락했던 안서연기자와 윤승목 오디오맨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예비검속으로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국제, 통일 부문 /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기획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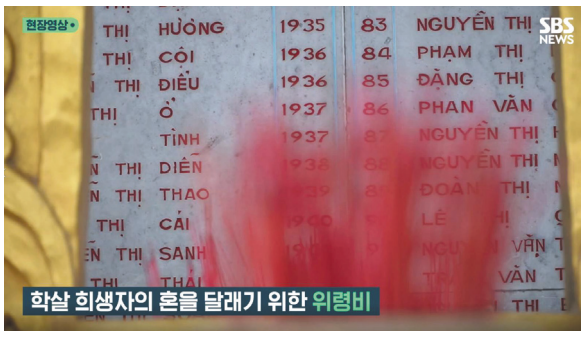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역사의 과오 인정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SBS 최대웅〉

'가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취재를 앞두고 생각이 많아졌다. 얕은 지식으로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그 현장을 되짚어 찾아간다니..우리 역사의 과오를 스스로 파헤쳐 널리 알리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리고 베트남 현지 취재는 순조롭게 될 것인지조차 불분명했다. 많은 생각과 불확실함을 잔뜩 안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1968년 2월 12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국군 해병대 청룡부대가 '퐁니·퐁넛' 마을에 진입, 게릴라 색출을 명분으로 어린이와 여성, 노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 70명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 사건 피해자인 '응우옌 티 탄'씨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 베트남인 학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SBS는 선고 이후 실제 민간인 학살 현장을 찾아가 생존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고, 기획보도를 통해 국내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베트남 다낭에서 차로 수 시간, 한국에선 휴양지로 더 잘 알려진 다낭의 복잡한 관광지와 아름다운 해변을 지나 한국군이 주둔했던 작은 마을에 도착하니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학살의 흔적과 기록(위령비, 증오비)은 생생하게 남겨져 후손들에게도 그날의 만행을 알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온 우리를 만나주지 않거나 적개심을 갖고 대하는 건 아닐지 걱정했지만,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오히려 멀리서 취재를 와준 것에 감사해하며 오래된 이야기를 가슴 속에서 하나둘씩 꺼내놓았다.



당시 8살이었던 '응우옌 티 탄'씨는 총에 맞아 쓰러진 어린 동생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죽은 가족들의 시신을 밟고 도망치던 그날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다던 '응우옌 티 홍'씨도 있었다. 그들에게 우리 국방부가 판결에 항소한 사실을 알리니 총, 칼에 망가진 내 몸이 증거라며 저마다 웃음을 들춰보이기도 했다.

베트남 취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류진성 씨를 만났다. 그는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한 몇 안 되는 참전 군인이었다. 무고한 양민의 죽음을 목도하고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던 자신을 변화시킨 건 다름 아닌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이라고도 말했다. 노병의 말처럼 지난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작품에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협회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쉽지 않았던 취재를 함께하며 매 순간 머리를 맞댄 김상민 기자와 물심양면 도움주신 SBS 영상취재팀 팀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보도 특집다큐부문 / 4.3 특집 남겨진 아이들

국가 폭력에 부모형제 빼앗긴 제주 아이들의 이야기

〈제주MBC 김현명〉

[직권재심]

직권재심제도는 제재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제재조치가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재 조치권자가 직권으로 재차 심사하여 당해 제재조치의 당부를 다시 결정(취소·변경 등)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2년도 8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는 첫 제주 4.3 직권 재심이 열렸습니다.

처음 열린 재판에서는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눈물을 머금는 검사와 제주 4.3으로 인해 오랜 시간 연좌제와 부모 없이 자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유가족들을 판결하는 판사까지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사람 손을 뒤로 묶고 라이터 불로 수염을 그슬리는 모습에 바짓가랑이에 오줌을 쌀 정도로 무서웠다."

제주 4.3 당시 부모·형제와 친척들을 국가 폭력에 의해 빼앗기고 남겨진 아이들은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공포와 두려움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연좌제로 낙인찍혀, 또는 고아로 힘든 세월을 겪으며 삶을 살아왔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저희 제주 MBC는 첫 직권재심부터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증언을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201호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뉴스로 제작하고 있고, 2023년 5월 31일 기준 30차 직권재심 재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은 '201호 법정' 뉴스를 바탕으로 강서경, 김을숙, 김성자, 송병기 네 분의 법정 증언과 삶의 이야기로 구성하였고, 직권재심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까지 총 5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직도 제주도에는 75년 전 4.3으로 인해 남겨진 아이들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 특집 '남겨진 아이들'을 통해 4.3뿐만 아니라 국가폭력을 겪어온 세대들을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의 시선으로 생각해 보고, 한 맺힌 시간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멀티보도부문 / [현장36.5] 응급구조사가 된 세월호 생존 학생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MBC 손지윤〉

어느 날 밤의 참회로 시작된 기사

참혹했던 작년 핼러윈데이의 밤. 밤을 새우고 퇴근하던 길에 나를 따라온 것은 이태원 골목의 장면들이 아니었다. 무력감이었다. 반복되는 사고 현장.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했던 참사. 그런데도 무한 취재 경쟁을 해야 하는 현장. 그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시민들의 비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 카메라만 부여잡고 있던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무력감과 죄책감 속에서 이 기사는 세상에 나왔다. 사이렌이 울리는 수많은 현장 속에서 조용히 'Rec' 버튼을 누를 때 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따라왔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자기반성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 법. 심폐소생술도 할 줄 모르고, 말로 위로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작은 카메라 하나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이 지난 후 참사 생존자들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영상기자의 책무로 느껴졌다. 자연스레 가장 근래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되었고, 9년이 되는 지금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MBC 뉴스데스크 <현장 36.5>로 쓰기로 했다.

7일간의 설득 끝에 이뤄진 인터뷰

"제가 한 번도 직장을 공개한 적은 없어서요." <현장 36.5> 기사를 쓸 때 섭외가 금방 되면 좋겠지만, 때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많다. 이번 기사가 특히 그랬다. 세월호 참사는 9주기가 되었고, 생존 학생인 '장애진 응급구조사'는 이미 여러 번 미디어에 언급된 취재원이었다. 하지만 똑같은 기사를 쓰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장애진 응급구조사'께 일하시는 곳을 영상으로 담고 싶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다. 그러나 그녀의 직장은 한 번도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었고, 취재원 자신도 그 부분만큼은 어렵다고 의사를 밝혔었다.

7일 동안 애진 씨를 설득했다. 이미 다른 취재기자 선배로부터 '공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은 상태였다. 그러나 단지 내 기사를 위해 참사 생존자인 취재원을 재촉하고 싶지는 않았다. 3월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기사라 천천히 기다렸다. 다행히 고민 끝에 애진 씨는 공개를 결정해 주셨고, 시화병원, 4·16민주시민교육원 등의 협조로 무사히 기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세월호 생존학생, 장애진 응급구조사

그래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장소와 이름만 달리한 채 여전히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역시 진상조사는 종료됐지만, 규명되지 않은 모호한 결과 보고만이 남았다. 각자의 이기심과 무책임 속에서 생존자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생존자들도 작은 목소리지만 언론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함께 연대하고 서로의 상처를 공유할 것이다. 영상기자들도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록자이자 목격자의 책임을 다해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끝까지 남아 있어 줘서 고마워요." 홀로 카메라를 들고 있던 내게 감사 인사를 건넸던 이름 모를 유족분에게도 이 기사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지역뉴스 특종단독 보도부문 / '700억 전남도청 사물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 연속단독보도

'세금으로 쇼핑', 700억대 전남도청 사무관리비의 은밀한 비밀

〈목포MBC 홍경석〉

내돈으로 쇼핑몰 물건을 살 때 과연 19%의 웃돈을 얹어주며 구매할 수 있을까?

흔히 사무관리비로 불리는 예산이 쌈짓돈으로 쓰이는 일은 공직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소모성 물품구입에 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끼워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올 한해 편성된 전라남도 사무관리비는 769억원에 이른다.

전남도청 모 부서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한 공무원이 사적 물품을 끼워서 구매하다 적발됐고 감사가 이뤄졌다는 소문을 접하자마자 취재에 나섰다. 사적 물품을 구매하는 창구는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전남도청 매점이었다. 물품구매 대행의 명목으로 19%의 수수료를 얹어서 결제가 이뤄지는데 온전한 물품의 값도, 19%의 수수료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정황을 낱낱이 파헤쳤다.

첫 보도가 나가고 도청 내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감사에 이미 드러난 사항이어서인지 전남도청은 구조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물품구매와 거래의 창구였던 매점의 실제 운영주, 공무원노조는 잘못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가짜뉴스로 공직자 명예훼손 목포MBC 기자 출입금지'라는 포스터와 성명서를 전남도청에 게시하고, 200여 개의 현수막을 도청 인근 거리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와는 별개로 전남도청에서는 전수감사에 나섰고,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우려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5월 23일 전남도청 감사관실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확인한 횡령 금액은 4천3백여 만 원. 모든 부서에서 횡령이 이뤄졌으며 금액에 따라 6명은 고발 및 수사 요청을, 14명은 중·경 징계를 요구했지만, 35만원짜리 에어팟을 구매하거나 5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훈계조치에 그쳤다.

감사결과 발표에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도 A4 한 장 남직한 대 도민 사과문을 배부했고, 공무원노조에서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왜곡보도로 몰아갔던 우리에겐 그저 유감만 표했다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취재 보도는 아직 진행형이다. 전남도청 감사실에서 인력부족의 한계를 드러냈던 만큼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며 공무원노조가 운영했던 매점의 경찰 압수수색 결과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이어갈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취재였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고 도움 준 목포MBC 보도국 모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제111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작품 공모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뉴스와 보도프로그램 중에서 투철한 기자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도영상 발전에 공헌한 기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 컷 한 컷의 영상 속에 오늘을 역사로 담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의 기자정신과 영상전문가로서의 땀과 열정이 담긴 보도영상작품을 <이달의 영상기자상>에 공모해 주세요.

■공모시상부분(정회원에 한함)
▲뉴스특종단독부문 ▲지역뉴스특종단독부문 ▲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지역뉴스탐사기획보도부문 ▲보도특집다큐부문
▲멀티보도부문 ▲'새로운시선' 부문 ▲인권-노동보도부문 ▲국제-통일보도부문 ▲환경보도부문 ▲문화-스포츠보도부문
■출품대상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원사를 통하여 방송된 보도영상물 또는 인터넷으로 송출된 작품
■제출기간
2022년 7월 1일(토) ~ 7월 10일(월) 오후 6시까지(출품기간 및 시간 엄수)
■심사 : 2023년 7월 21일 (금) 오후 4시
■심사 결과 발표 : 2022년 7월 21일 (금) 오후 9시
■제출서류 및 방법, 유의사항은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www.tvnews.or.kr)
■문의 : 한국영상기자협회 사무처(02)3219-6476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나의 첫 해외출장"

MBC 한지은

일본 출장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었다. 내일모레 시찰단을 쫓아 일본 도쿄로 가라는 것이었다. 시찰단의 동선이나 행선지는 공개되지 않아 쉽지 않은 출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덧붙이셨다. 첫 출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되다니, 설레는 반면 걱정이 앞섰다.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배를 잘 따라다니자 마음먹으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출장 당일 아침 일찍 회사로 와 공항으로 출발했다. 일본공항에 도착해 입국하는 시찰단의 모습을 잡기 위해 부랴부랴 수속을 마치고 입국장으로 나오자 이미 시찰단장은 취재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단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뭔가 잘 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쯤 단원들은 다른 공항으로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이 출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예감이 들었다.

둘째 날, 시찰단이 외무성에 기술 회의를 하러 들어오는 모습을 잡기로 했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총 세 개. 장소를 나눠 기다리기로 했고 나는 북문 앞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앞으로 버스가 한대 지나갔고 그 뒤를 기자들이 쫓아 달리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나도 정신없이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쫓아 달려갔다. 이미 버스는 멀어져 갔고 달리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될 무렵 한 일본 기자가 반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일본 언론의 정보력이 강하다는 말을 들었던지라 무작정 나도 따라 달려갔다. 사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흐름을 파악하고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었다.

▲도쿄에서라이브방송을준비중인MBC한지은기자

셋째 날, 아침부터 후쿠시마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대한 회의가 이어졌다. 시찰단장이 브리핑을 한다고 공지한 장소가 제1원전과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었다. 피폭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이 브리핑은 도쿄지국에서 챙겨주기로 했고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후쿠시마 어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원전과 60km정도 거리의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들어갔다. 어민들과 선장들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이후 수산물 직판장을 찾았다. 안에는 원전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대형 홍보관이 들어서 있었다.

스케치를 하고 수산물 직판장에서 취재하는 영상기자 선배와 취재기자 선배의 모습을 담았다. 후쿠시마에서 만난 어민들과 선장들, 판매업자들의 입장 또한 꽤 흥미로웠던 포인트였다. 그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입장 발표 전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후쿠시마 바다가 오염되어 수산업이 주춤할까 걱정했던 입장이었다. 정부가 입장 발표를 하자 이들은 말을 아끼기로 했다.

후쿠시마에서 긴 하루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가면서 영상기자 선배와 나, 취재기자 선배, 코디 선생님까지 묘한 동료애가 샘솟았다. 하늘이 어두워진 것을 바라보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서로 마주 보지 않은 채로 꽤 오랫동안 달렸던 것 같다. 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각자 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도 잠깐씩, 동기화가 된 것처럼 같은 생각을 했던 것도 같다.

출장 기간 동안 총 네 번의 라이브를 했다. 여러 번의 라이브를 하면서 더 좋은 라이브 배경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다녔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날의 취재를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을 찾는 것이 '기자가 일본 현지에 와서 직접 취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꼈다. 옆에서 선배가 고심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짧은 시간 성장할 수 있었다. 언젠간 혼자 해외출장을 가서 1인분 이상의 몫을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직 아득한 미래처럼 느껴진다.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멀지 않은 미래에 모든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해내는 나를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무수히 애쓰고 분주해질 날들이 기다리고있다.

첫 해외출장에서 첫 MNG로 공개한 '직지' 원본…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 움직임 생겨 '뿌듯'

KBS청주 김성은

'니가 가라, 프랑스'

영상취재부장에게 온 문자 한 통으로 첫 해외 출장이 결정되었다. 아이템은 <직지>. 1377년 고려시대 청주목 사찰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1800년대 말, 프랑스 영사 콜랭 드 플랑시가 프랑스로 가져가 경매에 넘겨졌으며 소중한 우리 유산임에도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런 직지가 대중에 공개된 것은 1973년 파리에서 열린 만국박람전시회 이후 50년 만으로, 직지의 본고장인 청주에는 직지 원본을 활영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출장이다. 현재 아카이빙된 대부분의 직지 관련 자료들은 복제본으로, 직지의 원본을 활영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청주에서 직접 취재, 촬영하는 것이 향후 역사자료'로 남을 아카이빙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프랑스행 출장이 결정되었다.

다행히 동기 취재기자와 가게 되어 많은 소통을 하며 준비할 수 있었다. 기존 취재 방향은 출장 복귀 후 리포트를 제작하는 것이었으나 동기와 이야기하면서 직지 공개 당일인 4월 12일에 MNG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처음엔 '첫 해외 출장에 첫 MNG라니. 파리에서 방송사고라도 나면 어쩌나'하는 걱정도 앞섰다. 선배들께 여쭈니 '직지 공개 첫날'은 시의성과 의미가 있으니 MNG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프랑스 국립도서관 앞에서 MNG 중계할 것을 데스크에 제안했다. 현지 연결로 직지가 프랑스에서 공개되고 있음을 좀 더 현장감있게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MNG 연결은 충북 지역에서는 처음 연결한 해외 MNG로 그 시도 자체에 나름의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MNG 외에 가장 고민됐던 것은 '직지'라는 우리 문화유산이 타국에 귀속되어 전시되고 있는 실상을 어떻게 '시각화'할까 하는 점이었다. 직지 원본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도를 통해 '직지를 비롯해 고향을 떠나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을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다. 전시회에만 국한해 직지를 촬영하면 리포트가 전체적으로 정적이고 직지가 공개된 곳이 한국인지, 프랑스인지가 잘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전취재를 하면서 청주 고인쇄 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2년 전, 직지를 그대로 재현한 복제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거다!' 싶었다. 직지 복제본을 에펠탑, 개선문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물과 촬영하면 '직지', '프랑스'가 더 시각화되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인쇄 박물관 측에 복제본을 요청하여 에펠탑 앞에서 직지 복제본을 활용한 이미지컷을 연출했다. 이때의 촬영본으로 직지 프랑스 타이틀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과정도 과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취재를 통해 작게나마 문화재 환수에 유의미한 움직임이 생긴 것이 가장 뿌듯하다. 직지는 2018년 압류 면제법이 자동 폐기되고 환수 관련 법적 ·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그 이후로 지역에서 환수 및 임대 형태 반환 등 직지 환수 움직임이 사실상 없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로 직지가 타국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고 청주시와 담당 기관인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본향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KBS 보도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아무리 약탈이 아닌 매매 방식이라 해도 전국민적 반응은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입사 후 첫 해외 출장은 공개 당일 총 4번의 MNG 연결과 현장 제작 리포트, 귀국 후 4부작 리포트를 마무리로 끝이 났다. 파리를 떠올리면 에펠탑 앞에서 비 맞으며 타임랩스를 촬영한 저녁, 인터뷰와 전시회 스케치를 10분 분량으로 컷 편집해 보내는 데 장장 6시간이 걸려 뜬눈으로 밤새 동동거렸던 새벽, 촬영보조 없이 카메라 2대와 트라이를 들고 프랑스 국립도서관 전시회 스케치하던 순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시간이 지나니 전부 웃으며 추억하는 경험으로 남았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보다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컸던 첫 해외 출장. 그 부담감이 촬영기자로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욕심내게 하는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싶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첫 해외 출장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조금은 성장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또 어떤 취재를 하고 어떤 출장을 가게 될지도 기대가 된다. 끝으로, 막내인 내게 좋은 기회를 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청주 보도국 촬영기자 선배들께 감사드린다.

(꾸벅)

<오늘을 역사로 기록하는 영상기자> 전국대학생특강 참여기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

정현덕 KBS광주

보도영상의 모든 프레임을채우지만 대중에게 보이지 않는 이름. 바로 우리 영상기자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보여 지는 것들을 담아내는 우리의 모습. 캠퍼스의 청춘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때가 된 것 같다. 지난 4월부터 영상기자협회와 회원사의 영상기자들이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영상기자의 직무를 소개하고 특강이 열린다는 소식에 나는 기뻤다. 입사를 준비할 당시 풀었던 문제들과 그때의 감정들이 아직 생생히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다. 진로를 탐색하는 학생들의 고민은 각기 다르겠지만, 그 본질은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특강 강사로 참여했다.

지난 4월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의실. 50명 여의 학생들이 강의실을 메웠다. 나는 ENG 카메라를 꺼냈다. 백마디 말보다 강력했다. 그리곤 운을 뗐다. "직업이 무엇일까요". 영상기자의 장점이나 경험보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고민이라고 생각했다. 10년 전, 스물 다섯의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보통 고려하게 되는 건 '직'이다. 직함, 직종 등 내가 맡게되는 역할말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10년 전 내가 정말 찾던 것은 '업'이었다. 바로 어떤 가치를 쫓을 것인가 말이다. 그때의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하는지 몰랐다. 다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노력이 알려져서 '우리'가 행복해지길 바랐다. 그랬던 나는 10년 전 한 편의 다큐를 만들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학과통폐합 정책'으로 졸지에 화장품학과로 강제병합 된 미술학과의 이야기를 다뤘다. 작은 카메라 하나를 들고 억울함을 울부짓던 학생들의 목소리를 닥치는대로 담았다. <지켜주지 못한 날개>라는 이름을 단 다큐는 그해 KBS 신세대 VJ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전국에 방송되었다. 이 경험은 <사회통합>이라는 언론의 궁극적인 '업'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이후 나는 2018년 KBS정기공채에 합격하며 '직'을 갖게 되었다.

위 이야기와 더불어 내가 입사시험을 보던 당시 풀었던 실제 논술문제와 면접 질문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직접 취재한 영상보도물과 그 반향을, 영상기자의 '직업'을 설명했다. 강의가 끝난 후 50여명의 중 10여명의 학생들이 찾아와 명함을 가져가고, 다수가 연락을 취해 감사인사를 전해주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의 전국 특강은 미래 영상기자들이 그들의 직업을 찾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번 특강을 통해 나 또한 지역대학생들에게 영상기자를 소개하며 우리의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영상기자는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개개인이 통합하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가치들을 찾아서 보여준다. 영상기자의 사회적역할과 가치를대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의 캠퍼스를 누빈 영상기자 동료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이번 특강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바라본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면 영상기자 특강을개최했다.

특강을 통해 알게된 영상기자

조 윤 빈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전공

2023년 5월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관 소강당에서 한국영상기자협회 주관으로 영상기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본 직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및 실무, 취업 준비 과정 등을 현직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모두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생들로, 언론과 방송 분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보다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수심에 찼다는 것은 수많은 미디어에서 조명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 역시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설명회에 참석한 이유도 나름의 해답을 찾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대학교 1~2학년이 실무자를 만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번 자리가 매우 소중했습니다. 영상기자를 어렴풋이 알고 있던 저는 본 행사를 통해 진로의 폭을 조금 더 확장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들었던 전공 수업에서 벤야민이 설명한 사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진 이미지와 문자가 결합하여 정치적 의미를 생성한다는 부분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찍어 어떤 장면을 재생산할 것인가, 철학적이고 기술적인 해답을내리기엔 아직 스스로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 나가 카메라를 드는 것 사이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을 테니까요. 현업에 계신 선배님들을 만나 학생인 저와 직업인으로서의 기자 간의 거리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간극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를 잘 닦고 다듬어 좋은 어른으로, 좋은 언론인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저도 멋진 선배가 되어 저 앞 강단에 설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림에서 사진으로, 사진에서 영상으로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언론의 역할 역시 여러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선술집과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된 뉴스가 현재에 이르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까지, 자료를 남기는 기록자의 역사 또한 유의미하게 변화했을 것입니다. 다음 역사는 저희 세대가 써 나가겠죠. 그 기반을 마련해주신 기자님들과 설명회를 열어주신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보다 유익한 시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제13회 5·18언론상

언론인과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모집대상

5·18민주화운동 관련보도 · 사진
· 영상/다큐멘터리(뉴미디어 콘텐츠 포함)
- 2022. 7. 1. ~ 2023. 6. 30. 보도/방송/제작분에 한정

시상부문 및 상금

1. 취재보도	2팀	각 3백만 원
2. 사진	1팀	3백만 원
3. 영상/다큐멘터리 (뉴미디어 콘텐츠 포함)	1팀	3백만 원
4. 공로상	1팀	3백만 원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3. 6. 5.(월) ~2023. 7. 7.(금)

제출서류

1. 제작설명서 및 보도물 콘텐츠 목록	1부
2. 이력서 (출품자별)	1부
3. 뉴미디어 콘텐츠 부문 참가 신청서(해당시)	1부
- 시민 참가자는 제작 설명서 및 이력서 제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관련자료	1부

기타사항

· 결과발표 및 시상 : 2023. 8. (추후 공지예정)
· 수상작품 활용 : 5·18기념사업, 교육, 언론상 홍보 등

· 문 의
- 광주전남기자협회 사무국 (062-236-3316)
- 5·18기념재단 기획홍보실 (062-360-0523)

블랙 전광판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투명 LED 디스플레이가 바꿔놓을 디스플레이 시장의 미래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 입니다.

T.FLEX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뛰어난 광고 효과**

필름 소재 특성 **다양한 형태로 설치 가능**

전례 없이 밝은 필름 **세계 최고 밝기**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픽셀 피치 기술**

극대화 할 수 있는 **스페셜한 핵심가치**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제이솔루션이 응원합니다.

(2023광주민주포럼 발표문 요약1)

민주주의를 위한 벨라루스의 투쟁과 한국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미하일 아르신스키
제1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기로에선세계상(대상) 수상자

루카센코 장기독재에 신음하는 벨라루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벨라루스 정치 체제는 1994년부터 권력을 유지한 독재정권이라 할 수 있다. 벨라루스 국가수반, 알렉산더 루카센코(Alexander Lukashenko)의 행적은 수많은 시위를 촉발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왔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갈등의 상황 속에서 벨라루스의 대러 군사 협력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 더욱 곤경에 몰리게 되었다.

비아스나(Viasna), '인권 센터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정보에 따르면, 벨라루스에서는 2020년 초 이래로 34,000명이 구금되었다.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야권 활동가 마리아 콜레스니코바(Maria Kolesnikova)를 포함해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장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2020년 이래로 벨라루스 내 인권 상황은 심각한 악화를 거듭하고 있고, 2020년 대선 이후로 벨라루스 권력층은 평화 운동가, 여권, 활동가, 언론인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 벨라루스 내 정보 공간의 상황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 매체는 비판적 소재를 용인하지 않으며 언론 영역을 장악했다. 독립 매체들은 SNS, 메신저, VPN 서비스를 이용해 대중에게 정보를 전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러나, 벨라루스 정부는 이런 독립 매체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언론인과 편집자들이 체포되고, 사무실과 장비는 몰수되었다. 이들의 일부는 징역을 선고받았고, 일부는 벨라루스에서 추방되었다. 예를 들어, '나샤 니바(Nasha Niva)' 의 편집 사무실이 폐쇄되고 편집장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정부 억압에 따라 독립 매체의 언론인들이 벨라루스에서 추방되었고, 이들은 다른 국가로 망명길을 찾아야 했고 값진 인재를 잃었으며, 국가 내 정보의 연결은 와해되고 말았다.

국외로 쫓겨난 언론인들의 둥지, 벨샛TV(Belsat TV)

이들 중 많은 언론인들이 자리잡은 폴란드의 벨샛TV(Belsat TV)는 '텔레비죠나 폴스카(Telewizja Polska)' 의 자회사로, 구소련 지역에서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시청자분들께 믿을 만한 뉴스를 제공하고, 벨라루스의 문화와 언어를 널리 알리면서 친러 매체가 장악한 국가들의 가짜 뉴스에 맞서는 것이다. 국제팀에서는 주로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일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언론인에게 벨샛TV에서의 일은 근대적인 매체를 통해 동포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며, 폴란드 직원에게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통치 하에 있었던 폴란드를 지원했던 타국의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이다.

벨샛 TV를 보려면 아스트라 4A 위성(Astra 4A satellite)으로 조정하면 된다. 혹은 폴란드나 리투아니아의 전국적인 복합 상영관, 우크라니아 유선 방송 대부분뿐 아니라 벨샛 스마트 VOD 앱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 채널은 belsat.eu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송출된다.

belsat.eu 웹사이트는 4개 언어를 지원한다: 벨라루스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영어. 8개 테마로 구성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총 2,200,000명을 넘는다. 벨샛 소셜 미디어 팀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틱톡에서 프로필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폭력과 억압에 대한 시민저항의 기록,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마라)

나는 독립 텔레비전 채널인 벨샛TV와 협력하여 보도다큐멘터리 '두려워하지 마라.(DON't BE AFRAID)'를 제작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20년 당시 여당 후보였던 스비아틀라나 치카누사카야(Sviatlana Tsikhanouskaya)의 대선 운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다큐의 목적은 벨라루스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민주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두려워하지 마(DON'T BE AFRAID)' 는 선거 운동 참가자 뿐 아니라 구금된 사람, 심하게 구타당하거나 활동 중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까지 정말 많은 인터뷰를 담고 있다. 다큐는 폭넓은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냈고, 벨라루스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이 되었다. 또, 국가의 억압과 폭력에 동의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두려워하지 마(DON'T BE AFRAID)' 의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기로에선 세계상' 수상은 벨라루스에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쟁의 중요성과 기여에 대한 인정으로 여겨진다. 많은 벨라루스 사람들이 다큐 제작진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하며 민주적 가치를 위한 투쟁에 있어 국제적 지지와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벨라루스에서의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사안이 주목을 끌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 상을 수상하고 나서 위 사안들에 대해 대중과 매체의 논의는 더욱 깊어졌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이 보여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와 지지

벨라루스인들에게 한국은 민주주의적 이상을 위해 타협할 줄 모르고 싸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의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은 민주주의를 위한 벨라루스의 싸움에 있어 국제적 지지와 연대의 상징이 되었다. 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수상을 통해, 벨라루스인들은 민주적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있어 꾸준함과 목적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 정립된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간 한국의 역사는 벨라루스인을 고취시키는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한국의 역사를 통해 벨라루스인들은 '독재자는 영원하지 않으며, 민중은 독재의 폭정과 억압의 사슬을 끊을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이 덕분에 많은 벨라루스인들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움을 이어 나가며 벨라루스의 더욱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2023광주민주포럼 발표문 요약2)

영상을 통한 공감과 연결, 더 나은 미래의 모색

브루노 페데리코(Bruno Federico)
제1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특집상 수상자

저는 영상저널리즘 영역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2008년 콜롬비아의 한 지역에서 주민을 압박하는 거대 석유 회사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지원하는 노동조합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제가 이 외딴 지역에서 노동쟁의를 다루는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살인, 실종, 준군사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범죄의 배후에 우리가 노조로서 상대하고 있던 석유회사의 지원을 받는 준군사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와 폭력을 콜롬비아 안팎에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미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서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사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 다큐멘터리를 4개 언어로 번역했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지난 몇 년간 다른 투쟁이 제 관심을 끌었고 더 많은 뉴스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끝없는 탐욕을 가진 소수가 저지르는 폭력에 고통 받고 저항하는 다양한 인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언론이 어두운 방의 위태로운 성냥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없다면 어둠은 훨씬 더 커질 것

그 속에서 제게 계속되는 질문은: 언론이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권침해, 불평등, 환경파괴에 맞서 펜, 카메라, 녹음기로 싸울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부패와 부정행위를 폭로한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취재로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워터게이트 스캔들(Watergate scandal)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진압을 위르겐 힌츠페터(Juergen Hinzpeter)가 촬영한 영상이 미친 영향도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수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언론의 전반적 노력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미미한지 매우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날로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전쟁, 이주, 불평등에 대해 보도하고 이미 폭력적인 이미지에 익숙한 시청자에게 인간의 비극을 담은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론이 어두운 방에 불을 켜는 작고 위태로운 성냥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다면 어둠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핵심적인 무언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학교에 갑니다. 거기에서 수학, 문학, 역사, 생물학 등을 배웁니다. 이러한 지식은 평생 세상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이며 범위와 시간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때때로 그 내용은 건국, 현재 또는 과거의 분쟁, 종교에 대한 국가의 서술에 왜곡됩니다. 학교를 떠난 후에도 우리의 교육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어디서 알게 되었나요? 기후 변화는 어디서 배웠나요?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요? 팔레스타인 점령과 이주민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는요? 뉴스, 다큐멘터리, 라디오로부터입니다.매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알려주는 동안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퍼즐을 맞추면서 스스로 학습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알게 됩니다. 또한 뉴스를 접하는 매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해당 사건의 맥락도 알 수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매체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에는 여러 판본을 나란히 놓고 가짜 뉴스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을 반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체와 소셜 네트워크 간의 역할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에티켓, 관점, 편집자 및 사실검증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문이 더 신뢰할 만한 정보원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거나 뉴스를 게시하는 사람이 공식 언론에 접근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따금씩 우리는 그곳에서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 게시자는 공식 매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나 매체가 해당 사건에 관심이 없거나 그 이야기가 소유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매체의 서사에 맞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읽은 내용을 해석하고 출처를 확인하는 역량도 중요합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는 교육을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이해하지만, 정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를 해석하고 다양한 요소를 이해할 역량을 제공하는 지식 체계입니다.

다리엔 갭(Darien Gap)에서 이주민들의 험난한 여정을 담은 –"연결은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순간을 의미하는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부분"

2019년 동료인 나자 드로스트(Nadja Drost), 카를로스 비야론(Carlos Villalon)과 함께 다리엔 갭(역자 주: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열대우림 늪지대)을 건넜습니다.그리고, 미국PBS-TV 뉴스아워(News Hour)에 방송된 '험난한 여정(Desperate Journey)' 보도로 2021년, 제1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특집상을 수상했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미국이 국경을 닫으면서 폭력과 전쟁, 견딜 수 없는 빈곤을 피해 미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이자 가장 긴 이주 경로 중 하나인 남미를 경유하는 육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파나마의 폐쇄된 국경을 넘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 중 하나인 다리엔 갭(Darien Gap)이라고 불리는 울창한 산악 정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PBS 뉴스아워에서 <필사적인 여정> 시리즈를 취재하는 동안 카메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이티 등 전 세계에서 온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들이 다리엔 갭을 건너는 과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밀수업자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남성, 임산부, 아이들은 위험한 지형과 가슴 높이의 강을 혼자서 헤쳐가야 합니다. 길을 잃거나 식량이 떨어지거나 무장한 강도에게 돈과 텐트, 옷가지 등을 강탈 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폭력을 경험합니다. 강변에 널려있는 뼈와 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익사하거나 부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위험과 장벽은 엄청났지만 그에 맞서는 용기, 끈기, 인간애 또한 대단했습니다.당시 전 세계에서 약 3만 명의 이주민이 이 정글을 건너왔습니다. 작년에는 이 숫자가 2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 이주민의 힘겨운 여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들이 떠나온 상황, 미국에 도착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각국 정부가 이주민에 대해 제한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구실이지만 한 카메룬 망명 신청자는 "안전을 위해 도망칠 때는 자신에게 무슨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죠. 그저 안전한 곳을 원할 뿐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민들은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채로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 삶을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나란히 걸으면서 취재의 주인공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이는 언론인과 피사체 사이의 빠른 상호작용 이상의 것을 보게 했습니다.

연결은 텔레비전 저널리즘이 흔히 의미하는 정보 수집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적인 상호작용의 순간을 의미하는 언론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믿습니다.그러나 인간의 비극 뒤에는 책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 아동, 여성, 남성은 정글을 건너고 있을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멕시코 북부의 사막처럼 다리엔 갭을 건너는 것은 유럽의 정책으로 지중해의 목숨을 건 횡단이 강요된 것처럼 미국이 부과한 경로입니다.이러한 경로는 항상 국경을 폐쇄하고 북쪽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 했던 남쪽 국가에 이주 통제를 외부화한 산물입니다. 이들 국가는 더 빠르고 안전하고 쉬운 경로를 폐쇄함으로써 이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여정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밀입국 범죄 조직의 사업을 조장합니다. 우리의 영상보도, 다큐멘터리, 뉴스기사로 각국 정부가 이주민의 미국 혹은 유럽행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글의 길에서, 사막 또는 지중해 해변에서 이주민의 시신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이주민 개개인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경에서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폭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도록 만드는 폭력과 굶주림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3광주민주포럼 발표문 요약3)

박수칠 때 떠나자: 한국 언론의 국제뉴스의 자립 선언

김 성 해
대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국제뉴스에서 국내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언론사는 대부분 미국과 영국계다(김춘식 외 2022). 앵글로색슨계로 개신교와 백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국가다. 미국과 영국 등은 또 일찍부터 국제뉴스에 투자했고, 덕분에 지금도 국제여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남미 국가도, 중미도, 아프리카도 이들 언론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이들 언론에 내포된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할 때가 많다. 덕분에 약소국의 침략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은 미국의 아리크 침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이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 미국의 보호를 받았던 덕분에 한국은 그간 무임승차를 해 왔다. 한동안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국이 알아야 할 것과 미국이 알려주고 싶은 것에 대한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관점이 한국과 충돌하는 때도 많아졌다.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한 보도에서 두드러진다. 미디어를 통한 국가 간 심리전을 너무 모른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났지만 뿌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과 관련이 깊다.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아군의 충성심은 키워야 한다. 적을 악마로 만들어야 죄책감도 줄고, 다수 국민의 협력도 얻어낼 수 있다. 냉전은 이 전선이 국제사회로 확대하는 계기였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트루먼 대통령이 주장한 '진실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한국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인용하는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나 자유아시아방송 (Radio Free Asia)등이 이 목표로 등장했다.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은 지키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정부의 목소리를, 언론을 빌어 전달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대외정책과 같은 핵심 국가이익에 관한 보도에서 민간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2월 9일에 일려진 '노드스트롬 2' 가스관 폭파와 관련한 보도다. 탐사보도 전문가면서 퓰리처상을 여러 번 받았던 세이모어 허쉬 기자가 폭로했다. 미국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민간시설을 파괴한 테러 행위다. 한편으로는 독일과 러시아의 협력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게 하는 게 목표였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내부 고발자가 정보원이었다. 정황으로 봐서 가짜뉴스로 볼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유럽의 주요 언론은 지금도 침묵한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유투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도 관련 정보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국내언론도 다르지 않다. 관심도 없고 굳이 다른 시각을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한다. 국제정보질서의 구조적 모순에는 눈을 감은 채 익숙한 정보원만 찾는다.

덕분에 한국은 강대국이 전개하는 심리전의 놀이터가 된 상태다. 북한과 중국을 악마로 만드는 뉴스는 이런 환경에서 일상풍경이다(김성해 외, 2021; 김희교, 2022). 분단국가로 살아오면서 굳어진 '냉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관심 대상이다.

냉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한국에서 지배적인 생각은 모든 게 북한과 공산주의 탓이다. 미국은 한국을 도와준 착한 천사다. 미국에 대한 보은론, 혈맹, 민주주의 동맹 강화 등의 논리로 연결된다. 진실은 복잡하다. 그렇지만 정반대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다는 건 명확하다.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했던 적색 제국주의에 대항해 미국이 동맹을 규합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얘기가 다수의 생각이다.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미국과 영국에 책임을 묻는 시각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독일이라는 악마가 없어진 자리에 소련이 들어서고, 냉전이 끝난 자리에 다시 불량국가와 중국이 들어서는 것을 지적한다. 악마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 국내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여전히 악마다. 전쟁 범죄자고, 최악의 인권 국가면서,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잠재적 범죄자다.

국제뉴스에서 한국언론이 자립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국제뉴스에서 한국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할까? 최소 다섯 가지 정도의 개입 지점이 있다. 미국의 품을 떠나 자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면 된다.

국제보도의 소홀했던 영역에 대한 투자

그중의 하나는 국가이익 차원에서 그간 소홀하게 다뤄진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일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냉전을 시작하면서 미국이 많은 투자를 했던 '지역학' 연구에서 경험치를 얻으면 된다. 당시 미국은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등 전략적 우선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다양한 자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국제이슈에 대한 '집단지성'이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계 전문가, 해당 주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 프리랜스, 이해관계자 등이 모이는 공론장으로 생각하면 된다.

백화점이 아닌 전문매장이 되어야

두 번째는 백화점이 아닌 전문매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보도는 지역도, 영역도, 주제도 너무 많다. 영어만 잘한다고 전후좌우 맥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없다. 전문기자를 키워야 하는 이유다. 전쟁, 기후, 과학, 외교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거나, 지역과 국가별로 특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지역의 언어를 아는 기자 중에서 전문가를 길러내는 방식이다.

국제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정체성 바뀌어야

국제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세 번째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공론장' 관리자라는 자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아젠다, 프레임을 벗어나 국제적인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맥락에 담아' 전달하기 위해서다. 중국과 러시아 보도에 적용해 보면 이해가 쉽다.

우선 러시아 동원령 보도에서 국민은 '러시아 관점'을 전혀 모른다. 러시아 말을 몰라도 <Russia Today>를 비롯해 대안시각을 접할 수 있는 통로는 많다. 러시아 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교황조차도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이유, 이번 전쟁으로 유럽의 지정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경제봉쇄의 부작용이 유럽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등에 대한 많은 얘기를 찾아낼 수 있다.

외신에 대한 비판적 거리유지

외신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게 네 번째다. 특히 앵글로색슨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 유럽과 러시아 등 신냉전의 주역은 미국과 영국이다. 전쟁이 끝난 직후 다시 냉전의 불씨를 지핀 것도 이들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겨냥해 프로파간다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금도 한다. SNS도 예외가 아니다. "美 국방부, 가짜 SNS 계정으로 여론 선동.. 감사 착수"(연합뉴스, 22/9/20) 뉴스에 잘 나온다. 미국정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과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가 이미 경고한 내용이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 통신망을 통해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외정책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심리전을 벌여왔다. 국내 현안을 다룰 때 당연히 던져야 하는 "누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을 던지면 된다. 해당 매체가 인용한 정보원이 누구인지, 믿을만한지, 독립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제보도, 민족 과 국가이익 을 가치판단의 기준에 놓는 철학 필요

다섯 번째로 국제뉴스에 대한 '세계관'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최소한 민족이익과 동맹이익의 차이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악마'로 본다. 냉전 사고방식 때문이다. 낡은 세계관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게 국제사회다. 게다가, 신냉전을 맞아, 영미권에서 쏟아지는 많은 뉴스는 현상 유지 전략과 관계가 깊다. 북한은 여기서 '악마'가 되어야 한다. 불법 돈세탁을 하고,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악당이다. 그러나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많다. 2002년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도, 위조지폐 사건도, 북한이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미국의 '적대정책' 또는 미국의 '신냉전'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북한 인권 문제도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미국이나 서방의 관점이 아닌 '민족'과 '국가이익'을 가치판단의 기준에 놓는 철학이 필요한 이유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다. 언론이 당연히 복종해야하는 헌법에 나온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언론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에도 반영되어 있다. "평화통일 · 민족화합 ·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다한다" (기자협회)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한다" (Jtbc)등이다.

민주화경험에 바탕 한 국제사회의 성숙한 동반자라는 집단정체성 만들 때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발신 전략이 마지막이다.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의 성취는 놀랍다. 국제사회에 나눠줄 것도 많고 함께 풀어갈 과제도 많다. 그중의 하나가 민주화 경험이다. 미국이 선물로 준 게 아니었다. 미국은 한국을 반공 전초기지로 만들려고 했고, 민주주의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두 번에 걸친 군사쿠데타에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여한 게 미국 정부다. 민주당의 케네디 행정부와 공화당의 레이건 행정부가 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한국은 민주화라는 꽃을 피워냈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경험치도 값진 자산이다. 동족 간 죽고 죽이는 통곡의 시절을 보냈지만 '진실과 화해 위원회' 등을 통해 남남갈등을 차분하게 치유하는 중이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위해 발언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불평등한 국제정보질서를 고려할 때 특히 주의할 부분은 주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존중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한편으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에 해당한다. 평화, 인권, 포용, 다양성, 공정, 평등과 같은 시대정신을 확장하는 데 국내언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국제사회의 성숙한 동반자라는 집단정체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전쟁 취재하면 형사처벌?

우크라이나 취재한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 벌금형에 불복
언론사회단체와 함께 취재자유 제한하는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 · 보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가 언론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영상기자협회 등 27개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장 작가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인의 전쟁 취재를 사전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기자연맹, 국제언론인협회 등 국제적인 언론인 단체도 국제 분쟁지역에서 언론인의 활동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지지 성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장 작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와 르비우 등을 취재하고 돌아와 시사주간지 '시사IN', 월간 '워커스' 등에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경찰은 같은 해 4월 장 작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를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방문해 여권법 제17조를 위반했다며 입건했다. 장 작가는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4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여권법 제17조는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 전쟁 · 내란 · 폭동 · 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법은 '다만, 영주, 취재 ·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 ·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이들 단체는 "(여권법 17조는)언론의 전쟁 취재 · 보도를 외교부의 허가권 아래에 두고 있다"며 "해외 주요 나라는 언론인이 전쟁 지역에서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취재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취재 · 보도 목적의 입국을 외교부가 허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 작가처럼 프리랜서 언론인은 아예 외교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외교부의 허가 요건이 '외교부 출입 언론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여권법이 '언론 · 출판에 대한 허가금지'를 명시한 헌법 제21조 2항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거대 미디어 회사 소속이 아닌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 취재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취재한 영상기자들, 여권법의 취재자유 제한 토로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는 지난 해 우크라이나전쟁 취재를 다녀온 기자들의 간담회를 열어 현재의 여권법이 국내 언론인들의 국제뉴스취재를 막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여한 영상기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여권법에 의해, 우크라이나 입국이 막혀 한국 취재진만이 현지 취재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고, 이후 외교부가 제한적인 우크라이나 취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취재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났다며 현행 여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밝혔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분쟁지역 취재 · 보도는 200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 당시의 수준에 멈춰섰다. 당시에는 오히려 독자적으로 국제뉴스를 바라보려고 하던 우리 언론인들의 다양한 노력에 시청자들이 격려하고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언론의 국제보도, 특히, 분쟁보도는 오히려 퇴행해, 우리의 시각이 아닌 외신이 전하는 뉴스와 시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시청자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나회장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방송사, 언론사, 또, 소속 언론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지부진하고, 평소에 여권법 같은 국내언론인들의 자유로운 해외취재를 제한하는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에 대해 침묵하고 묵인해온 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외지역의 취재 · 보도를 활성화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여권법 개정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회차원의 활동들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경숙 기자 cat1008@naver.com

일본 군국주의 전범자와 정치인의 역사인식 (2)

아소타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의 역사인식

한 원 상 (한국영상기자협회 고문)

아소 타로(麻生 太郎) 일본 자민당 부총재

조선인 강제노역으로 성장한 아소기업과 가계

아소 타로(麻生 太郎) 일본 자민당 부총재(사진1)는 1940년 9월 20일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1979년 정계에 입문한 뒤 일본 중의원 의원에 13차례 당선했으며 일본 내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극우파' 정치인이다. 경제재정정책 담당 대신, 총무 대신, 외무 대신 등을 지냈으며, 2008년 9월부터 1년간 제92대 일본 총리를 역임했다. 현재는 일본의 권력 핵심이며 '나카소네 야스히로 세계평화연구소' 회장을 맡고 있다.

아소 씨의 증조부 아소 타키치(麻生太吉)는 일본 중의원 의원을 역임했으며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을 징용해 노역시킨 아소 광업의 창업주이다. 아소 타키치(麻生太吉)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해 온 아소 씨의 부친 아소 타카키치(麻生太賀吉)는 일본중의원 의원 3선과 아소광업, 아소 시멘트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조선인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노역시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

아소 씨 자신도 선대의 회사를 물려받아 아소 시멘트 회사를 경영해 왔다. 1979년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중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아소 시멘트 사장을 사임했다. 이 회사의 전신 기업은 아소 광업이다.

▲사진3 아소광업주식회사 분광업소 아카사카탄광에 동원된 강성향 씨 (빨간색 동그라미•사진=한원상 제공)

표1) 주요한 연행 기업

기업명	작업장소 수	연행자 수
미쓰비시광업 주식회사	4	13,390
아소광업주식회사	1	10,623
미시마탄광주식회사	1	10,260
미쓰이광산주식회사	3	10,260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	3	8,085
후루카와광업주식회사	3	6,413
쿠마가야구미	5	4,202
일본제철주식회사	3	4,067
카호광업주식회사	1	4,057
니시마츠구미주식회사	4	3,779
주식회사 하자마	6	3,266
히타치광업주식회사	1	2,834
카이지마탄광주식회사	1	2,497
도우와광업	2	2,467
닛산화학공업주식회사 3	3	2,280
하리마 조선소	1	2,202
가와나미공업주식회사	1	2,026
스미토모광업주식회사	2	2,008
오쿠라토목주식회사	4	1,975
메이지광업주식회사	1	1,723
미쓰이광산주식회사	1	1,695
오쿠무라구미	1	1,637
가와사키중공업주식회사	2	1,619
토오후에노탄광주식회사 1	1	1,577

※ 회사명은 당시 기업명으로 표시 함.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하면 전시 중에 조선인을 강제 연행한 기업명과 연행자 수를 지금까지 밝혀진 범위에서 보면 미쓰비시 광업회사가 13,3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아소 광업이 10,623명이었다(표1).

표2) 아소계열의 탄광 (후쿠오카 지역)

아소 아카사카탄광
아소 세분탄광
아소 요시쿠마탄광
아소 마메다탄광
아소 야마우치탄광
아소 시바오카미미오탄광
아소 다테이시탄광

아소 광업은 1954년 아소 산업으로 개칭되고 1969년에는 석탄산업의 폐업을 계기로 아소 그룹이 '주식회사 아소'로 변경되었다

아소 광업은 조선인 노무자의 착취로 성장해 그룹으로 발전했다. 아소 씨는 이 그룹에서 최고 경영자의 대표를 지냈고 여기에서 나온 자본력으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조선인 강제노역으로 성장한 전범 기업 아소 탄광을 운영한 일본 재벌 가문의 후계자로 유명하며 '망언 제조기'로도 유명하다.

▲사진2 2006년 1월, 인터뷰하는 강성향 씨(사진=한원상 제공)

망언 제조기 아소타로

아소 씨는 2003년 5월, 자민당 정조회장 당시 한 강연에서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한글은 일본이 보급하고 의무교육제도도 일본이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옳은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05년 11월, 외무대신 당시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의 한 강연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해서 지적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라고 말해 전쟁 피해국들을 비난하고 주변국들을 자극하기에 이르렀다. 아소 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선인 강제노역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 오히려 "조선인 강제 징용은 없었다"고 하고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과 관련해 "나치식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조선인 강제연행으로 부를 쌓은 아소재벌

일제 강점기에 다수의 조선인이 아소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그곳에서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사망자가 다수나왔다.

아소 씨의 선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에 엄청난 고통과 막대한 피해를 줬고, 다수의 조선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그중 하나로 일본 자민당 부총재 아소타로 씨가 사장을 역임한 현 아소시멘트의 전신, 산업시멘트철도(주)도 있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1932년 8월, 임금 착취와 임금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파업을 단행, 차별대우 철폐, 임금 즉시 지급 등을 요구했을 정도다.

한편, 후쿠오카에 있는 아소광업 계열의 아소카미미오 탄광을 비롯한 7개의 탄광 회사(표2)에서 사망한 조선인 명부에 기록된 희생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협화회(協和會)가 조직되었다. 전·도·부·현에 만들어진 협화회는 일본 정부와 지방기관이 직접 관여한 조직 단체로 일본 내무성 경보국의 하부 기구인 경찰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구제·보호, 지도 등의 이름으로 재일조선인의 황민화를 추진하였고 나중에는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 확보에 관여했다. 협화회는 일본 내 전시체제의 감시역이 된 특별고등경찰(이하 특고경찰)과의 지시·감시 아래 조선인에 의해 근로보국대를 조직해 규슈의 탄광이나 광산, 홋카이도의 건설 현장 등에 강제로 보내졌다.

전쟁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1943년, 일본은 노동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이에 내각 직속으로 종합국책 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원은 국민동원 실시계획에서 한반도로부터 조선인 징용 외에 일본 거주 조선인의 노무 동원을 결정했다. 당시 재일조선인이 가장 많았던 곳은 오사카부(大阪府)로 43만 명이 넘었다.

강제 연행된 피해자의 증언

필자는 당시 오사카부 내 '협화회' 회원으로 아소광업(주) 아카사카 탄광(후쿠오카현)에 연행돼 살아 돌아온 생존자 강성향(당시 85세) 씨를 2006년에 만났다(사진 2). 오사카부 오요도 근로보국대 소속이었던 강 씨는 아소광업(주) 분광업소 아카사카 탄광에서 노동을 했다(사진 3). 아소 광업은 아소타로 씨도 사장을 지낸 바 있는 아소 시멘트의 전신 기업으로 당시 사장은 아소 씨의 부친 아소 타카키치이다.

당시 조사에서 아소 광업에 연행된 조선인 가운데 경북 영주시 하망리에 거주한 강 씨가 유일한 생존자였다. 고령의 강 씨에게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강 씨는 과거에 탄광으로 강제 연행된 조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인터뷰에 응했다.

- 당시 일본에 갔을 때, 경위와 생활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오사카에는 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 대부분 협화회 회원이었다. 이 회에서 일본인화 교육 및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았다. 오사카 오요도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었다. 경찰서에 조선인을 관리, 감시하는 특고경찰과가 있었는데 조선인에게는 대단히 두렵고 지옥과 같은 곳으로써 특고경찰과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실행했다. 0월 0일 출두하라는 영장이 와서 나를 포함한 재일조선인 청년들이 특고경찰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합격자는 탄광으로 보내졌다. 한 청년이 검사 도중 아프다고 신고했더니 특고경찰로부터 심하게 맞아 비명이 밖으로 들렸다. 누군가 맞는 소리가 들리면 겁이 났다."

- 아소아카사카탄광에서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

"나는 아소 광업(주) 고분광업소 아카사카 탄광에서 일했다. 탄광에는 보국대 소속 조선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징용자로 끌려온 조선인도 수천 명이 있었다. 일본인은 여러 명 있었지만 모두 관리자였다. 탄광 내 조선인에 대해 차별이 있었다. 특히 재일조선인보다 한반도에서 끌려온 조선인들이 더 고생이 많았다. 이들은 얼굴도 체형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탄진을 뒤집어쓰고 힘든 작업을 하고 있었다."

- 조선인 희생자가 있었는가?

"갱내에는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 아무리 가스가 배출해도 다이너마이트를 끊임없이 터뜨리다 보니 가스는 고이기만 했다. 너무 더워서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왔다. 부상자는 갱내에서 밖으로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런 일은 다반사였다. 조선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몸이 부자유가 된 사람도 있었다. 나도 졸았다. 일하다가 발가락과 손가락을 다친 적도 있다. 사고가 나는 원인은 갱내에 설비 문제도 있었지만 아무리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해도 매일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갱목이 버틸 수가 없었다."

강 씨는 "아소 아카사카 탄광으로 끌려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당시 가까운 절에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강 씨는 아소타로 씨의 망언 발언에 반발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을 선택하겠나? 우리 조선 사람들은 탄광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강제 연행되었다. 일제 때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영상기자 멀티제작능력 강화 연수 후기]

"전문가 교육, 현장의 고충과 피로 덜어줘…교육 기회 자주 열리길"

MBC경남 김태현 기자

영상기자의 하루는 대체로 오전 취재 계획이 나오는대로 그날 일정에 대해 취재기자와 논의하며 이동해 취재를 하고, 해질녘에 회사로 복귀해 기사의 논조와 방향에 맞춰 영상 구성을 어찌할지 고민하며 퇴근을 맞이합니다. 어떤 날은 노을이 지고 있고 어떤 날은 찬바람 부는 한밤중이기도 해서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 때도 있습니다. 본사는 물론이고 지역사 동료 선후배님들도 같은 마음이라 예상하건대, 이렇게 데일리 취재와 단독 및 기획보도에 집중하다 보면 체감보다 서둘러 연차가 쌓이고 해가 바뀝니다. 수행같은 날들이 쌓여 역량을 더해가지만 제대로 된 이론 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이 일에 몰두하면 여러모로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던 날에 영상기자협회에서 교육 안내 문자가 왔고 지체없이 신청했습니다.

짐가방을 들쳐메고 광주 터미널에 내려 집합 장소로 모였고, 교육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예정된 1일차 교육이었던 '달그릇 5분 다큐'는 며칠간 취재하며 짬이 날 때 수편을 봐두었기에 고군분투하며 기획과 섭외 그리고 촬영이 이어지는 제작기에 대해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섭외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을 했는지,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다루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고민했다는 얘기에 현장의 동료들이 큰 공감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며 나온 많은 멘트들은 크로스체킹을 하며 유관기관과 자료 검증 등을 거쳐 보도했다는 제작자의 말에 한편씩 만들어내는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나아가 영상기자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기획과 섭외 그리고 영상취재, 마지막으로 성과를 내야하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는 훗날 제가 보도 작품을 만들 때 참고가 될 거란 확신을 했습니다.

2021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의 후기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해외 보도는 간헐적으로 볼 수 있으나, 국제 문제를 지적하며 수개월 혹은 수년간 시간을 들여 보도하는 작품은 쉽사리 접할 수 없기에 아이템 선정부터 촬영 과정에서의 위험, 보도 후 사후처리 등 영상기자들의 질의응답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예산 확보부터 나가야 할 방향, 분쟁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 등 수상자들의 신념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현재도 6년의 준비를 걸쳐 아이템을 준비한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한국의 보도환경도 하루 동안 일어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당연하나 긴 호흡으로 준비하는 보도물은 뉴스 가치를 어떻게 다뤄야할지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상기자협회의 교육과 연수의 장점 중 하나는 평소에 보기 힘든 전국 각지의 기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동향을 주고받고, 각사의 업무 환경에 대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업무에 지장없이 휴가를 내야 하는데, 동종업계끼리 모이기가 쉽지 않은 기자 직군은 이런 기회에 친분을 쌓고 업무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고 교육 참여자 대부분이 기대했던 넷플릭스 '피지컬 100' 제작기의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한 대로 쉽사리 접할 수 없는 양질의 교육이었습니다. 숱한 기획서가 올라가지만 제작되어 시청자를 만나는 작품은 한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 대해 간결한 PPT 정리로 설명해주어 보도 환경에 익숙한 영상기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방송환경의 변화와 소비형태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건지, 그리고 이어지는 질의응답의 시간도 좋았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영상기자들은 마음만큼 교육 및 연수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에 1회의 참여도 여건이 따라야 합니다. 무더위와 추위에도 여러 사건사고 그리고 보도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애쓰는 영상기자들에게 종종 교육 기회가 열렸으면 합니다. 며칠간의 전문가에게 받는 정석의 교육은 독학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현장의 고충과 피로를 제법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준비해주신 영상기자협회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 광주민주포럼을 다녀와서…>

우리가 찾던 '저항의 언어'

<채종윤 한국영상대학교 교수>

2차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실존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측과 구조 속에 인간됨을 이해하려는 측, 과연 '인간은 주체적일 수 있는가'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서양 사상가들 사이에 있었다. 결국 인간은 사회의 구조 속의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후 구조주의 시대의 문을 열었다. 대표적인 구조주의 철학자 롤랑 비르트는 구조주의를 언어라는 측면으로 접근했는데, 패권을 지니지 못한 언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어법 사이에는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에크리튀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해 냈다. 이는 어법을 선택한 순간 자기가 선택한 어법이 강요한 '형태'로 말하게 됨을 일컫는다. 그에 따르면 '징후가 없는 언어 사용'이야말로 '패권을 쥔 어법'이며 그 어법은 그 사회의 '객관적인 언어 사용'으로 '신화화'된다는 것이다. 주관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이 그렇다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처럼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어법이 포함한 '예단'과 '편견'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텍스트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수용자의 모습은 우리가 독립된 주체로서 텍스트를 바라볼 수 없는 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편성과 동시성을 가진 영상언어 ,'세상의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힘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주체 불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인간을 도구화했던 시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했던 사르트르의 '주체적 인간'을 다시 소환하고 싶다. 역사의 흐름은 바꿀 수 있고 변혁 시킬수 있다고 믿었던 고민과 논제들이 필요했던 '횡포의 시대'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언급했듯이 그것은 언어나, 자본이나, 정치권력이나 젠더권력, 지식권력과 같은 현재의 담론에 예속된 우리가 스스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 있는 '사유'를 전제한다. 모순적이지만, 그것은 언어에 갇힌 우리가 언어로 예속되어야만(구조적 세계관) 비로소 '탈예속'(주체적 세계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모든 가치중립적 언어를 허위적 언어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가치중립적 언어를 이용해 응대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상언어'는 이미 보편적이고 동시적 언어가 되었다. 바르트가 말한 순수한 '에크리튀르'가 '영상언어'일 수 있다고 명증하는 일이 용기 있는 영상기자들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가로막는 벽을 허무는 일에 '영상이라는 저항의 언어가 실금을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영상을 찍으셔야 해요", "(미하일 아르신스키)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뛰면서 주고 받은 그들의 언어가 우리가 찾던 바로 저항의 '영상언어', 바로 '탈신화'의 언어이자 주체적 언어이다.

해외 출장의 필수 관문 '까르네'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MBC 현기택

연말연시면 으레 다양한 인사들이 오간다. 연락이 뜸했던 취재원의 안부 문자에서부터 취재를 위해 등록한 자동 메일까지 안 그래도 바쁜 연말에 카톡 하나, 메일 한 통이 얼마나 큰 대수인가? 12월 26일. 대한 상공회의소를 통해 중국 세관으로 받은 메일 한 통 역시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약 3개월간의 피말리는 소명작업에 매달렸다.

중국 세관에서 보낸 메일은 아주 간단했다. 지난 2022년 1월 베이징 올림픽 취재를 위해 발급한 일시적 수출입 신고인 '까르네'가 중국으로부터의 재수출 확인이 되지 않아 그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아주 무미건조한 몇 줄의 영어 문서 마지막 줄은 만약 소명 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재수출은 뭐고 베이징 올림픽이면 11개월 전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이제야 뭘 소명하라는 건지?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달되었기에 우선 상공회의소로 문의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내용은 이랬다. 방송 장비나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국가 간의 협약이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서류가 '까르네(Admission Temporary Admission Carnet : 무관세 임시 통관 증서)'다. 보통의 방송장비들이 면세 범위를 넘어가는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에 해외출장을 위해서는 까르네 신고절차가 필수적이다. 까르네 신고는 한국에서 출국할 때, 해외 특정국가에 입국할 때, 다시 해외국가에서 출국할 때, 한국으로 입국할 때 총 4번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완전히 절차가 종료된다. 간혹 해당 국가의 사정에 의해 그냥 통과하게 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문제는 필자처럼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신고했는데 출국할 때는 확인을 안 받는 경우다. 이럴 경우 고가의 장비가 해당 국가 내에서 세금 없이 재판매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해서 적절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신고 가액의 20%에 가산세 10%까지 더해진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시킨다. 필자의 경우 약 8천만 원이 보험가액이니 30%인 2천4백만 원이 세금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2천 4백만 원이라니? 아니 도장 하나 안 받아왔다고 설마 2천4백만 원을 내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2021년에도 모 방송사에서 유사한 상황으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해외 유사 사례는 물론이고 까르네 협약의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는 등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 나섰다. 비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마저 고려했다. 그러다 결국은 까르네 국제협약에 나와 있는 8조 2항의 한 줄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다. 까르네 협약에 따르면 기한 내 재수출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제3국에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었다. 세관을 통한 공식 서류 발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세관은 당시 물품을 확인받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 발급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했다. 결국 해당 장비를 회사로부터 수령했고 올림픽이 끝난 후 모든 장비를 회사인 MBC로 반납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사내 절차를 통해 만들었고 이를 다시 중문으로 번역해 증빙자료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사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고 한 뒤라 이제 더 이상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력도 없었다. 세금이 부과되면 회사에 보고하고 징계받거나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구정을 코앞에 두고 출입국 증명서 등의 추가 증빙자료를 함께 대한 상공회의소를 통해 중국 세관으로 보냈다. 그리곤 약 2달 뒤인 3월 중순에 대한 상공회의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축하드립니다. 중국 세관에서 인정을 해줬네요. 까르네 클레임이 해소되었습니다."

까르네 클레임이 해소되었음을 알리는 것도 역시 단 한 통의 메일이었다. 두 통의 메일에 정말 3개월 동안 천국과 지옥을 몇 차례나 오갔던가? 다행히 이번은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클레임 해소를 위한 과정에서 다른 출장의 까르네 서류들 역시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들투성이었다. 타사의 경우도 비슷해 보였다.

까르네를 발급받고 수출입 신고를 할 때 꼭 알아야 유의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까르네 클레임은 1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 혹은 그 이후에 제기된다. 이러한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재수출기한을 1년 짜리로 발급받기를 추천한다. 필자의 경우에도 재수출기한이 6개월이 아닌 1년이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기한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모든 까르네 절차를 완벽히 수행한 서류가 있으면 출장 복귀 후 보증보험료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아마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보험료를 환급받는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또 4번의 까르네 신고절차 중 4번 모두를 안 하는 건 아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신고 절차를 행한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 즉시 우리 세관과 상의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만 추후 까르네 클레임을 피할 수 있다.

中国国际商会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A REQUEST FOR PROOF

Date: 2022-12-26
ATA CARNET NO: KR202200070SE OUR REF. NO: IM20220046

Issuing chamber of commerc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Date of expiry of validity of the carnet:
Date fixed for the re-exportation of the goods: 2022-07-23
Date of importation: 2022-01-28
Customs office of entry:Beijing
Time limit for claims: 2022-12-19
Time limit for the presentation of proof: 2023-06-19
Special observations:

Dear sirs,

The Chinese customs authorities have no evidence of re-exportation of the goods temporarily imported into their country under cover of the above-mentioned carnet. Therefore please send us the necessary evidence.

If evidence is not provided within the time limit or if it is not accepted, the Chinese Customs will require payment amounting to pl. least under the guarantee which we have provided, which covers the import duties plus 30%.

Should reduced rates of Customs duties are applicable you are requested to forward us the relevant documents.

Yours faithfully,

NING Pei

Director, ATA Division, CCPIT/CCOIC

▲까르네 클레임 사본. 아주 간단한 메일이지만 클레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주변의 동료들이 대부분 까르네를 출입국 과정에서만 필요한 증빙 자료로만 인지하고 있고 나 역시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까르네는 출입국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담담히 꺼낼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는 듯했다. 해외 출장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똑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경험담을 공유한다.

여름 휴가에 가서 세네카를 만나자

책 추천
KBS 김정은(한국영상기자협회 부회장)

세네카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인, 문인이다. 한 백과에 따르면 그는 대표적인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중 한명으로, 로마제국 최초의 공인된 폭군 네로의 스승으로도 유명하다. 3대 황제 칼리굴라 시대부터 5대 황제 네로 시대까지 벌인 여러 악행들과 별개로, 남긴 여러 작품들이 라틴어 원전으로 사용될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다는 평을 받는다. 세네카의 라틴어 작품들은 키케로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저작과 함께 로마 시대 고전 라틴어의 표준으로 여겨진다. 동양에 《논어》가 고전의 표준이라면 세네카의 책은 서양의 고전으로 여겨질 정도다.

내가 소개할 책은 세네카의 「인생론」이다. 책의 부피가 아주 작고 챕터가 짧으며 문장이 길지 않아 우선 읽기 수월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심오해 깊이 생각할 거리를 제시한다.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푸른 하늘을 보며 음미해 본다면 그 문장이 주는 울림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

책에 있는 몇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대로 죽는 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 그리 힘든가? 제대로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살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에 큰 가치를 두기보다는 생사를 덧없는 것이라 여겨야 한다.' -15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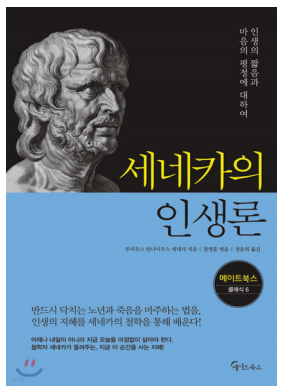
'고귀한 철학자들은 영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줄 것이며,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는 자리에 오르게 해 줄 것이다. 이는 유일한 존재인 우리가 더욱 오래 살 수 있고 불멸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110P

'아무리 인생이 짧다고 해도 충분히 즐기고 남을 정도로 길다.' -91p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사는 것은 현재를 사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며 내일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 ...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75p

여름휴가를 가서 세네카의 「인생론」을 읽으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생의 플랜을 구성해 본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복잡한 인생사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 없이, 플랜 없이 가다 보면 길을 잃기 마련이다. 지친 일상에 포위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다. 어느덧 몸은 늙고 후회뿐인 나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이른 때이다.

오롯이 내 자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 나가보면 어떨까? 세네카의 「인생론」은 그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책이 분명하다.



두 눈으로 침착하게 현장 보는 기자 되고파

신입기자인사말 / 광주MBC 임원후

"계엄군은 물러가라!"

지난 2월 5 · 18광법단체와 특전사동지회 화합행사에 앞서 5 · 18 일부단체 회원들과 시민단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몸싸움은 수습도 떼지 못한 나를 당황시키고도 남았다. 왼쪽 눈을 질끈 감고 뷰파인더를 보는 오른쪽 눈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원후야 저쪽저쪽!"

현장에 동행한 영상기자 선배가 다급히 나를 불렀다. 선배가 가리킨 곳에선 특전사회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입구 앞에서 사람들이 대자로 누워 입구를 막고 있었다. 다시 한쪽 눈을 질끈 감은 채 촬영을 했다. 시간이 지난 뒤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찍었다 싶을 때쯤 선배가 나를 뒤로 몇 걸음 물러나게 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물러나서 현장을 바라보니 모든 상황이 한 눈에 들어왔다. 나는 지금까지 현장을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취재 후 취재기자 선배가 기사를 쓰고 녹음하는 동안 편집실에 앉아서 내가 취재한 영상을 쭉 모니터링 했다. 당시 현장이 상기됨과 동시에 수많은 컷들을 가지고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기사가 출고되고 내용을 천천히 읽어봤다. 첫 컷을 어떤 그림으로 넣어야 할지, 첫 싱크가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 영상 구성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았다. 촬영본을 반복해서 보며 선배 도움을 받아 꾸역꾸역 편집했다.

취재한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나가기 전 마지막 과정은 편집이다. 촬영해 온 수많은 영상 중 가장 좋은 컷들을 모아 기사 스토리에 맞게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그림 앞뒤가 붙지 않아 끙끙 앓기도 하고 편집 후에도 아쉬움은 항상 남는다.

내가 촬영한 영상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될지 항상 고민한다. 이제 6개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현장이 수두룩 남아있다. 한발짝 물러서서 침착하게 현장을 보고, 두 눈을 뜨고 현장을 보는 영상기자가 되고 싶다.

"현장에서 더 고민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일하겠습니다"

신입기자인사말 / 연합뉴스TV 김상윤

태풍으로 축대가 무너진 강북구의 한 재정비구역. 작년 9월 입사하고 처음 혼자 나갔던 취재 현장입니다. 출발할 당시만 해도 기사는 접했지만 정확한 주소는 알지 못해 인근 소방서에 전화해 주소를 확인한 후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이 2m도 안 되는 좁은 골목 사이로 축대가 무너져있던 현장은 경사도 심해 촬영하기에 좋은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촬영하다가 이제 부감을 찍으려고 장소를 고민하던 찰나에 구청 직원들이 무너진 축대가 유일하게 보이는 좁은 골목에 그새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그 사이로 찍어봤지만, 순식간에 현장은 가림막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나간 취재 현장은 출발할 때의 설렘은 사라지고 필요한 컷을 일부 찍지 못한 후회만 가득 남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선배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도 현장에서 아쉬웠던 저의 판단들뿐 아니라 촬영본 자체에 대한 부족한 실력도 당연히 많이 느꼈습니다. 정확한 취재 못지않게, 변수가 많고 취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판단해 촬영할 줄 아는 능력도 영상기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던 첫 취재였습니다.

입사한 지 곧 1년이 되지만 아직도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아!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도 찍어볼걸"하며 후회가 드는 때가 많습니다. 영상기자로 매일 내리는 크고 작은 판단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차가 쌓여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후회와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그래도 존경하는 선배들 밑에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곧 다가올 장마와 태풍까지 겪고 나면 영상기자로의 첫 사계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모자란 부분도 많고 겪어야 할 현장도 산더미 같지만, 현장을 누비는 것이 설레고 가슴 뛰어 선택한 영상기자라는 직업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협회원 인사동정

[MBC강원영동]
MBC강원영동 박민석 부국장
-2023.06.01-승진

※ 외부 기고는 본지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기자 Korea Video Journalist Association

발 행 · 편집인 | 나준영
편집장 | 현기택
편집위원 | 김중용, 김현기, 김준형, 김진성, 윤형, 전상범, 김광현
취재기자 | 안경숙 **행정** | 오주아, 이경선 **제작** | 미디아이

1999년 4월 23일 창간
2019년 8월 19일 등록번호 양천, 마00009(격월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tvnews.or.kr
팩스 : 02) 3219-6478 / 전화 : 02) 3219-6476~7

한국영상기자협회
우) 07995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내 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광주광역시

건강 지원
* 방문진료 * 방문맞춤운동

동행 지원
* 병원동행
* 관공서 외출동행

안전 지원
* AI 안부확인
* ICT 활용 안전체크
* 안전생활환경

식사 지원
* 맞춤형 영양설계
* 영양음식 조리·배달

주거 편의
* 간단수리
* 대청소
* 방역·방충

가사 지원
* 가사활동 * 신체활동
* 일상활동 * 방문목욕

일시 보호
* 시설 단기 입소
* 케어안심주택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에 돌봄을 더하다"

돌봄콜
1660-2642

돌봄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믿음직한 돌봄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함께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돌봄**을 연계하고 + 틈새는 **광주+돌봄**으로 메우고 + 위급할땐 **긴급돌봄**이 출동합니다

2023년 4월 1일 시작됩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 상 돌봄이 필요한 광주시민 누구나
문 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돌봄콜(1660-2642)
이용절차 신청 ▶ 현장방문 및 평가 ▶ 돌봄계획 수립 ▶ 서비스 이용 ▶ 모니터링